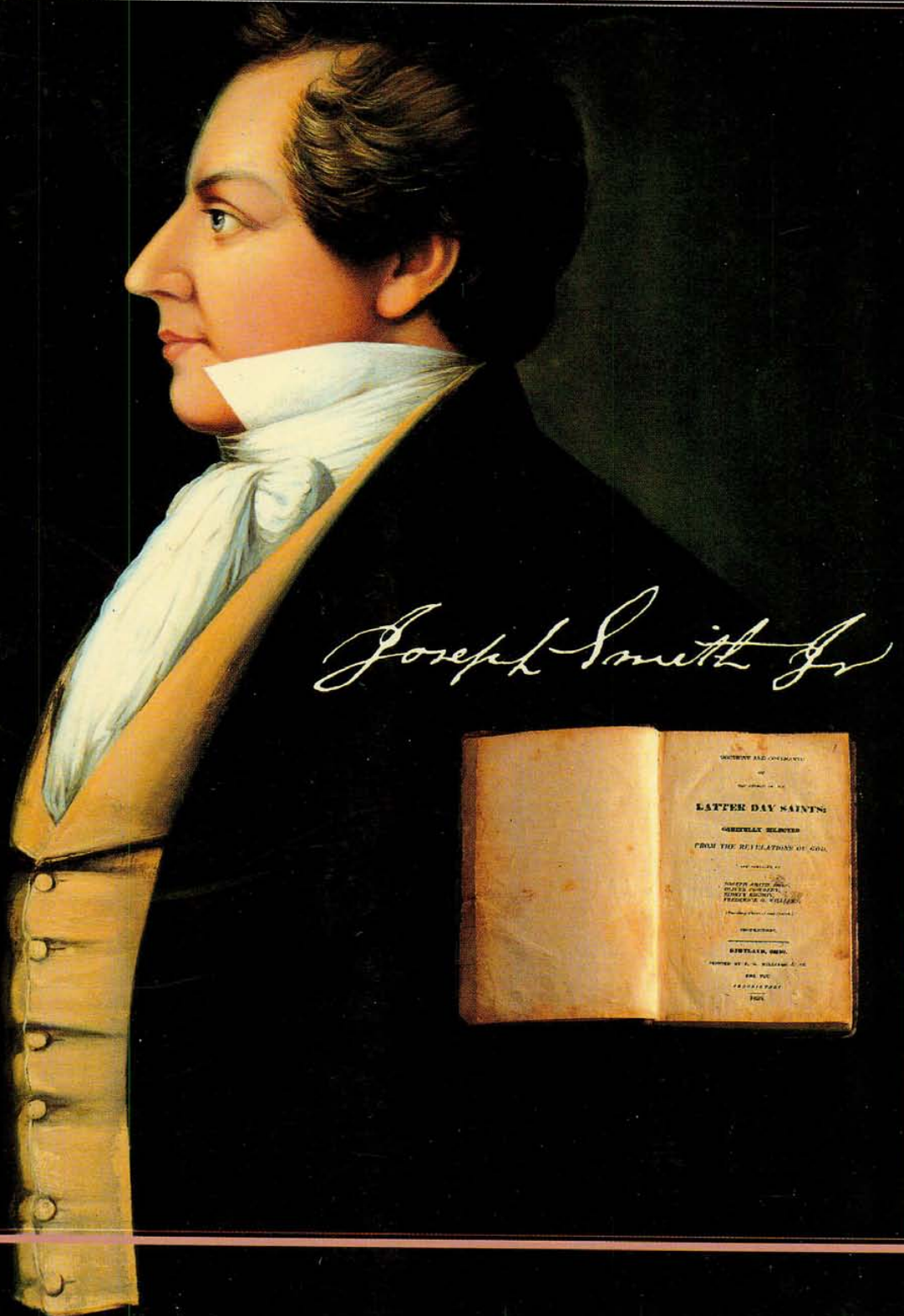


# 성도의 빛 9

1989

말 일 성 도 예 수 그 리 스 도 교 회



# 성도의 빛

1989년 9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 제279권, 제34권, 제9호  
**등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89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정 기 만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909KO  
Printed in Korea 9/89

© 1989년 제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4,000원 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의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대관장단 메시지 :

- 2 “여리고 길”.....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방문 교육 메시지 :

- 7 “인간의 가치가 위대함”

- 9 나는 영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는가?.....제이 켄슨

### 질의 응답 :

- 14 요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하는 데에는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존 더블류 웬즈

- 16 잃어버린 진리의 회복 : 2부.....길버트 더블류 샤프스

- 19 텅 빈 나무의 거리.....토마스 엘 케인

- 25 알콜 중독자의 말.....에마 블랙

- 27 자녀에게 예언자를 따르도록 가르침

- 33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헨렌 텅거

- 35 피아 아주머니.....마릴린 제이 휘플

- 39 배움의 네 단계.....러셀 엠 넬슨

- 42 행복과 성공에 필요한 요소.....조 제이 크리스틴슨

### 물문 메시지 :

- 47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였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흠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 48 준비하라.....마르시아 윈터본

### 청소년란

- 49 교육에 관한 메시지

### 어린이란

- 51 베키 모트간과 샬리 한나

- 52 “율법”을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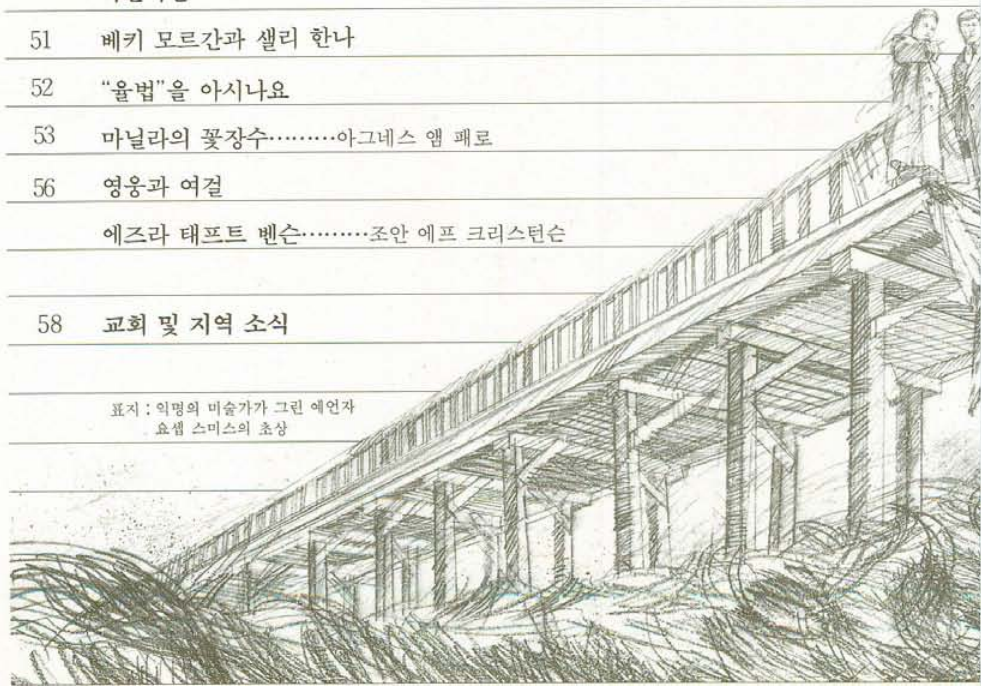
- 53 마닐라의 꽃장수.....아그네스 엠 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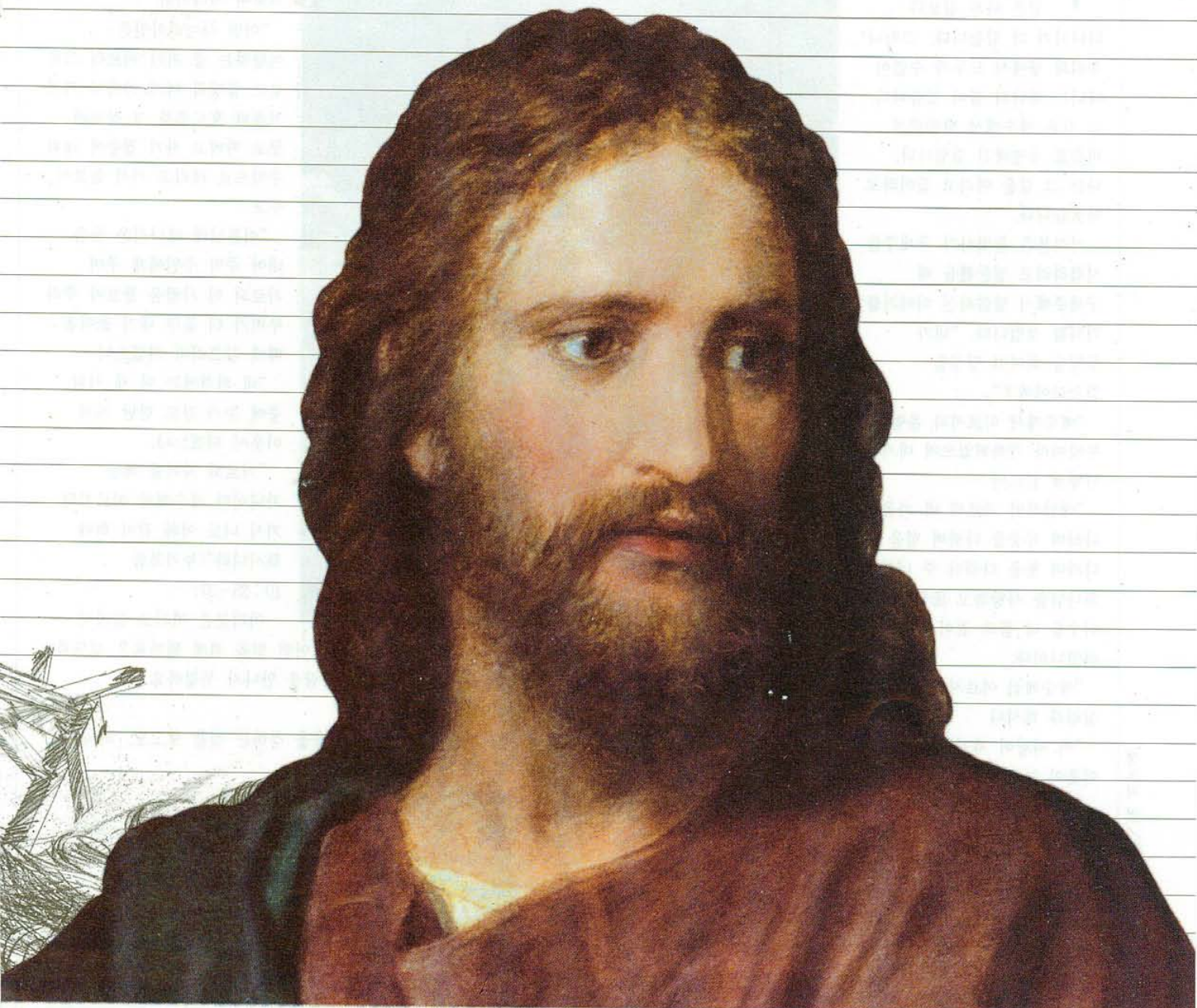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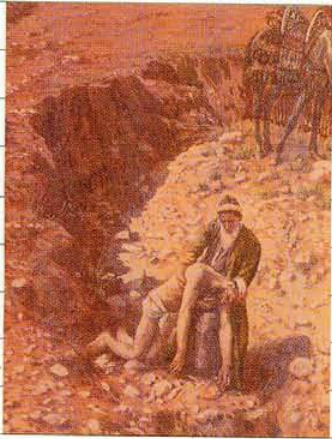
- 56 영웅과 여걸

에즈라 태프트 벤슨.....조안 에프 크리스틴슨

- 58 교회 및 지역 소식

표지 : 이명의 미술가가 그린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초상





# 여리고 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는 이 생에서 수많은 길을 다니며, 어떤 길은 다른 길보다 다니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에서 모두가 수없이 다니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유명해진 길입니다. 나는 그 길을 여리고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사가 구세주를 시험하려고 질문했을 때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테나리온 들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푸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0: 25~37)

여러분은 여리고 길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나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강도를 만나 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겠습니까?

나는 부상당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갈까요?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것을 보고,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경고의

여리고 가는 길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상당한 자가 우리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소리치는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따라 갈 때,  
 완전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결코 어느 것에도 비할 바 없는 기쁨을 주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 가는 길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상당한 자가 우리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소리치는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따라 갈 때, 완전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구세주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베테스다 못가의 병자, 간음한 여인, 야곱의 우물가에서의 여인, 야이로의 딸,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 등은 모두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모두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베테스다 못가의 병자에게, 예수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요한복음 5:8)고 하셨습니다. 죄지는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한복음 8:11)고 충고하셨습니다.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는 영생에 이르도록 마르지 않을 샘물을 주셨습니다.(요한복음 4:14)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마가복음 5:41)고 명하셨습니다. 무덤에 매장된 나사로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라”(요한복음 11:43)하는 잇을 수 없는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예리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구속주에게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같은 사람의 생애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나의 길에서도 그같이 풍부하고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신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께 그러한 예를 두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번째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나 도움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이고, 두번째는 내가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여러 해 전에 누구보다도 친절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루이스 시 자콥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주었으며, 이민은 사람들을 도와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또한 장례식에서의 말씀도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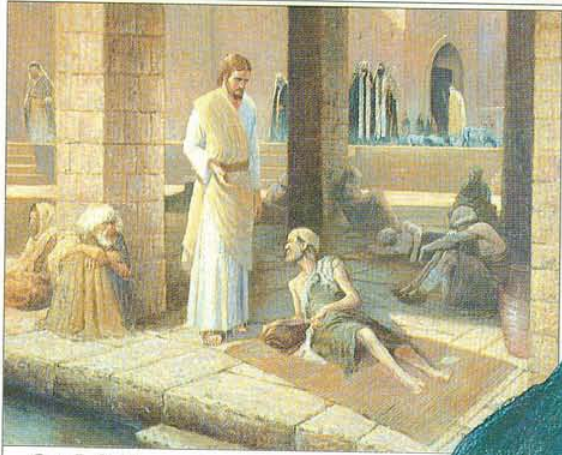
어느 날 자못 회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루이스 자콥슨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덴마크인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키도 작고 볼품도 별로 없어, 흔히 같은 반 친구들의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안식일 아침,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그의 너털 너털 기워 입을 바지와 낡아빠진 셔츠를 보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어린 루이스는 강한 자존심 때문에 울음도 터뜨리지 못한 채 예배당을 빠져나와, 단숨에 솔트레이크시티 중심가를 내달려 길가에 나와 주저 앉았습니다. 루이스가 앉은 길가의 도랑에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공과 내용을 적은 종이를 꺼내, 숨쉴듯 종이배를 접어, 흐르는 물에 띄웠습니다. 상처받은 소년의 마음속에서 “다시는 안 갈테야.”라는 결심이 솟아났습니다.

갑자기 눈물 어린 루이스의 눈에 키가 큰 정장한 사람의 상이 물에 비친 것이 보였습니다. 위를 올려다 본 루이스는, 조지 버비지 주일학교 회장을 알았습니다. “같이 앉아요 되겠니?”하고 친절한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루이스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도랑가의 길바닥에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길을 뻗친 선한 사마리아인이 앉았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여러 개의 배가 접혀 띄워졌습니다. 드디어, 그 지도자는 일어나서 소년의 손을 꼭 쥐고 같이 주일학교로 되돌아 갔습니다. 후에 루이스 자신이 바로 그 주일학교를 맡았습니다. 그는 오랜 봉사 생활을 통해서, 여리고 길에서 그를 구조해 준 여행자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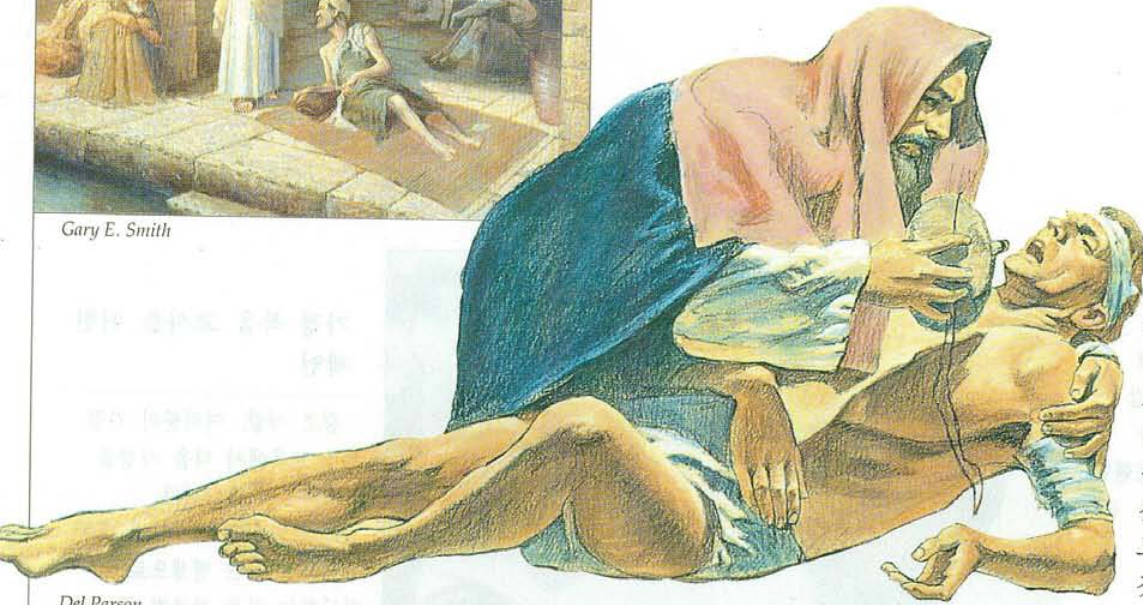
두번째 예로 드릴 말씀은 내가 여리고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열 살 때 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다른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전기 기관차를 원했습니다. 나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태엽을 감아 주는 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갖고 싶어했습니다. 그 당시는 경제 공황 시기였으나, 부모님은 성탄절 아침에 내게 훌륭한 전기 기관차를 선사해 주었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한 것이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나는 그 기관차를 돌리면서 엔진이 바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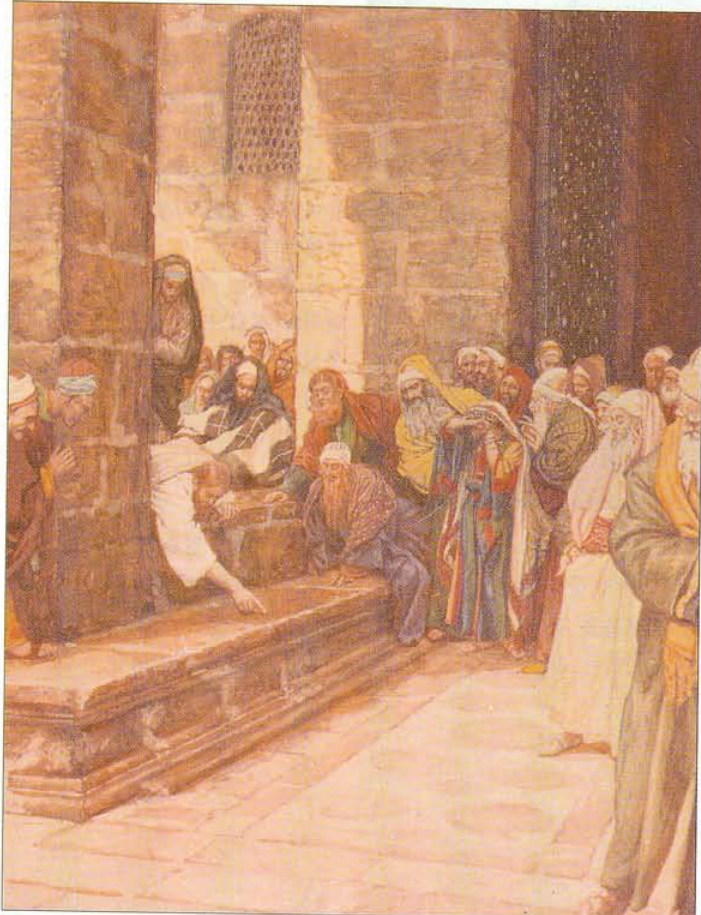


Gary E. Smith



Del Parson

베테스다 못가의 병자, 간음한 여인, 아굽의 우물가에서의 여인 등은 모두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모두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James J. Tissot

있는 데서 처음에는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와 아랫 마을에 사는 과부 한센 부인의 아들인 마크를 위해서 태엽감는 기차도 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기차도 좀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 기차는 내가 받은 값비싼 기관차와 같이 길고 매끄럽지 않고, 짧고 뭉뚱했습니다. 그러나 그 값싼 장난감에는 유조 차량이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 기관차에는 그런 차량이 없어, 은근히 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졸라 그 유조 차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크보다 더 그것이 필요하다면, 갖도록 해라”하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기관차에 그 유조 차량을 달고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그 나머지 것을 갖고 마크 한센에게로 갔습니다. 그 소년은 나보다 한 두 살 위였습니다. 그는 그런 선물을 받으리라곤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말도 못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내 전기 기관차보다 훨씬 못한 기차에 태엽을 감아 주고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뿔 듯이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재치있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토미야, 마크의 기차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심히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음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곧 돌아올게요.”

나는 전속력으로 집으로 달려와 유조 차량과 내 것에 있던 것 하나를 더 떼어, 한센 부인 집으로 되돌아가서 마크에게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네 기차에 붙어 있던 차량 두 개를

잊어버리고 왔어.” 마크는 차량 두 개를 자기 기차에 덧붙였습니다. 나는 장난감 기차가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을 보며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사람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읊던 시귀로 즐겨 부르시던 노래나 컷가에 들려주시던 이야기로 회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 줄 기회를 찾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가 여리고 길로 함께 간 그 날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마음을 즐겁게 해 주고, 도움을 베풀어 주며, 영혼을 구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자, 상처받고 외로움을 겪는 자, 나이들고 방황하는 자, 이들이 모두 우리의 도움을 외쳐 구하고 있습니다.

생의 이정표는 모든 여행자를 유혹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명성을 얻는 길, 권세를 얻는 길, 인기를 끄는 길, 호화롭게 사는 길 등을 따라 나가기 전에 갈림길에 잠시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로 가는 길로 나를 따라 오라”하고 은밀히 속삭여 주는 작고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모두 영생으로 인도하는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따라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주님의 비유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2. 그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불쌍한 사람에게 동정심을 품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매어 주고, 그를 데려다가 모두 자신의 경비를 들어가며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3. 우리는 각자 자신의 여리고 길로 다닙니다. 우리가 부상당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의 애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까?
4. 이 세상에는 마음을 즐겁게 해 주고, 도움을 베풀어 주며, 영혼을 구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자, 상처받고 외로움을 겪는 자, 지치고 굶주리며 추위에 떠는 자, 나이들고 방황하는 자, 이들이 모두 도움을 외쳐 구하고 있습니다.



# 인간의 가치가 위대함

목적 : 자매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내에서 그들의 가치와 커다란 중요성을 좀더 잘 인식하도록 돕는다.

지난 이십 오년 동안, 캐롤은 착실한 가정주부로 일해 왔으며 그 역할에서 큰 만족을 찾아 왔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을 선교사로 내보낸 후에는 자신이 이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있을 동안에는 자신이 가족에게 귀중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치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어 보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더 귀중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새 옷을 사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어 보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직업을 갖거나, 무슨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캐롤이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원한 것에서 근본적으로 그릇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녀와 다른 많은 자매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그들의 환경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해 내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천부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그들은 잊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환경이 바뀐다 해도, 우리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의 할당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외관이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보는 것과는 훨씬 다른 각도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이는 그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사무엘상 16:7)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인간의 가치에 대한 필수조건은 아름다움과 젊음과 부와 성공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본부 청년 회장단의 보좌를 역임한 바 있는 패트리시아 홀랜드 자매는 여대생 모임에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균형잡힌 몸매, 에이(A) 학점, 또는 전문 직책이나 어머니로서 흠없이 성공을 거두는 일 등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나머지 참된 자아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하는 데 너무

신경을 쓰다가 우리 자신의 개성을 잃고, 우리 자신을 가치있고 개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여유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영의 중심”, 1987년 1월 13일, 브리검 영 대학 영적인 모임 말씀)

우리가 자신의 가치로 인해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성전에서 동전 한 닢을 낸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헌물을 과시라도 하듯 내보이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다. 오히려 그는 그 과부를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남과 나누려 하는 큰 가치를 지닌 훌륭한 여인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 과부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눈에 띄지도 않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필경 최신 유행의 옷도 입지 않았을 것이며 그 마을의 부자나 권세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재산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주는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다. 그분은 그녀의 외관을 보지 않았습다. 그분은 그녀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과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는 주님의 사업과 인류에 헌신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인식할 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로마서 8:16-17) 우리의 개인적인 가치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로써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다음 성구를 읽고 토론한다. 시편 82:6, 요한일서 3:1-2, 로마서 8:16-17.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받은 축복에 대하여 말한다.
2.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이 가지고 있고 또한 그녀가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재능이나 자질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한다. 주님의 사업에 계속 헌신하게 한다.

(가정의 밤 자료집, 7-11, 20-30, 36-42, 109-117, 146-155, 244페이지 참조)



# 나는 영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는가?

제이 켈슨

예 인자 요셉 스미스가 순교한 후에, 브리검 영 대관장은 요셉이 여러 차례 그를 방문했다고 보고했다.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다. “요셉은 내게로 걸어와 뚫어지게 그러나 기분 좋게 바라보고는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라고 하십시오. 주님의 영을 간직하면, 그것이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를 물리쳐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에게 해야 할 바와 가야 할 방향을 알려 줄 것이고, 왕국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확신한다면, 성신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의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임을 형제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영을 다른 모든 영들과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에 평화와 기쁨을 속삭일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서 악의와 증오심과 분쟁과 모든 악한 것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그들의 온전한 소망은 선을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청소년 인스트라터, 8[1873]:114)

영을 따르는 원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므로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여러 차례 이와 같이 말씀했다. “영은 이 영화로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선교부장 세미나, 1975년, 1986년, 1987년)

영은 우리 말일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우리는 대다수가 그 기능을 잘 알지 못하므로, 흔히 우리는 영의 작용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다.(니파이삼서 9:20 참조)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 센터의 지부장으로서, 나는 여러 선교사들이 간증을 가져 보지 못했으며, 영적인 경험을 한 것을 전혀 기억할 수 없었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하여 들은 후에는 그들은 사실상 수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으나 그것을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임을 깨달았다.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경험에 대한 것을 듣거나 읽음으로써 부분적으로 더 심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경험을 자주 접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비슷한 시현이나 영적인 경험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영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믿게 된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자 노력해 왔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심과 확인과 지시를 해 주신다. 다음 예를 생각해 보자.

### 영은 평화를 말함

“내가 이 일에 관하여 네게 평강을 말하지 아니 하더냐?”하고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줄로 여기느냐?”(교성 6:23)

평강의 느낌은 가장 공통적인 경우 나타내심의 하나이다. 평강에 합치되는 느낌은 고요함과 평정이다. 그 반대되는 것에는 근심과 혼란과 분쟁과 같은 감정이 포함될 것이다.

우리 가족이 애리조나주 메사에 살았을 때, 한 살 난 우리 딸이 바이러스성 뇌막염을 앓게 되었다. 병을 진단한 의사는 24시간 안에 우리는 딸아이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리라고 말했다. 우리는 아기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다. 아기는 의사가 어떤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인 일주일 동안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다.

고통스런 일주일을 보낸 후에, 우리는 다시 금식하고, 와드 회원들도 우리와 함께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전에 실제로 겪은 경험 만큼이나 생생하고 분명히 느낄 수 있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했다. 우리는 혼란에 쌓이지도 않았으며, 그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되지도 않았다. 우리는 딸 아이가 살지 죽을지 알지 못했으나, 우리는 평안을 찾았다. 다행스럽게도 딸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

어느 특별한 성찬식이 있는 후에 열 다섯살된 아들이 말했다. “아빠, 말씀을 듣는 동안 나는 따스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는 따스한 느낌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토론했으며, 그것을 경전에 나와 있는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에 연관시켰다.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교성 9:8)

뜨겁다는 것은 강도가 다양한 것으로, 내 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가슴에 따스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구세주를 만난 두 제자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누가복음 24:32)하는 말을 서로 주고 받았다. 이러한 느낌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진리를 확인하고 기도에 응답이 되는 구체적인 나타내심이 되는 것이다.

### 우리 정신과 우리의 마음

영이 직접 정신과 마음에 함께 말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말씀했다.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교성 8:2~3)

성신이 말할 때, 우리의 정신은 갑작스런 이해의 빛을 밝히게 된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나 깊은 감사 또는 사랑으로 넘칠 수 있다. 어떠한 특별한 느낌이 일어나게 되든지, 그것은 정신과 마음속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선교사와 복음 공부하는 동안, 구도자는 “맞습니다”, “전부터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물론입니다”하는 말을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한다. 때로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때에, 구도자는 “깨달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을 통해 진리를 인식할 때, 우리는 사물을 이해하며,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된다. 주님은 “내가 나의 영을 네게 나누어 주려니와 너는 네 마음을 밝혀”(교성 11:13)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모임에서나 또는 나 혼자서 내가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 내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어느 때인가 고등 평의회 모임에서 과문을 당한 어느 형제에게 다시 침례받도록 권고하는 말을 들으면서 거룩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당시 스테이크 부장단의 일원이었다. 모임 중에 우리는 그가 간증을 하며 다시 침례 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의 소망을 이해했으며, 그가 성실하게 자신의 상황을 바르게 잡아 보려는 노력에 귀를 기울이며 내 영혼은 기쁨에 가득 찼다. 그는 말을 다 마치고,

방에서 나왔으며, 위원회는 잠시 숙고해본 뒤, 다시 침례받도록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스테이크 부장은 나에게 그 결정 사항을 그 형제에게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옆 문으로 나가 그가 혼자 앉아 결정 사항을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대기실로 갔다. 그가 일어서자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님, 위원회의 결정은 형제님이 다시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는 내 팔에 쓰러지듯 안겼으며, 우리는 함께 울었다. 영의 사랑에 가득 찬 영향력으로 우리가 축복받을 때 우리 영혼에 가득 차는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곧 이어 우리의 정신을 밝혀 주고 기쁨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는 구절을 말씀해 주셨다. “그리하면 내가 알게 될 것이요, …내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모두 다 이로써 알게 되리라.”(교성 11 : 14) 이와 같이 정신과 마음이 합치되는 것은 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가지 방편이 되는 것이다.

#### 마음속의 음성으로

메리온 지 린니 부대관장은 주님은 때로 완전한 문장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1년 12월호, 947~49페이지) 때로는 실제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으나, 어떤 때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되는 어떤 인상이나 생각이 머리속에 떠오르는 수도 있다. 이노스는 그가 “이렇게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임하시어”(이노스 1 : 10)라고 말했다.

어느 감독은 나에게 비슷한 경험을 말해 주었다. 어느 일요일에, 접견과 모임과 방문 계획이 이상스러운 정도로 많이 쌓였다. 오후 10시 30분쯤, 그는 연단을 지나 예배당으로 걸어 나올 일이 있었다. 그는 막중한 책임감에 짓눌려 어슴프레한 예배당 안에서 무릎을 꿇고 그 짐을 지고 나갈 힘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탄원했다. 기도하고 있는 동안, 한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렸다. “감독님, 당신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왜 집에 가서 쉬지 않으시오?” 그 생각에 그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생각해본 그는 그것이 누구를 교회 직책에 부를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받은 것 같은 직접적인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다.

#### 영의 인도하심

사탄은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 선을 행하게 하는 법이 없다. 물론은 이렇게 말했다. “악마는 이같이 행하여 단 하나라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마의 천사들도 그러하며 악마에게 매어 있는 자들이 다 그러함이라.”(모로나이서 7 : 17)

한편 하이람 스미스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영을…신뢰하라.”(교성 11 : 12) 우리는 이로써 선을 행하라는 속삭임은 영의 나타내심이 될 수 있음을 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궁핍한 처지에 있는 것을 아마도 가까운 친구중에서, 도와 주어야겠음을 강력하게 느껴 본 적이 있는가? 어떤 사람과 말하면서 올바른 것을 말하도록 인도받았는가? 영의 역사하심은 바로 이러한 것이니…그는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신다.

하이람 스미스는 또한 영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게”(교성 11 : 12)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정의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이 말의 가장 적절한 의미는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틀림없고 또는 선한 것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영은 다른 행동을 권유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어떤 돈을 지불하기 전에 십일조를 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는가? 어린 아이가 자신의 장난감을 남과 나누기를 배우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몇 가지 예에서 보듯이 영은 사람에게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을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하이람은 영은 우리를 “공정하게 심판”하게 인도한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경향을 다스려야 하지만, 판단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은 판단을 요구한다. 여러분은 자녀들 사이의 언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어 평안을 다시 찾은 적이 있는가? 어떤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가 그릇 되었음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이러한 것은 영이 여러분에게 의롭게 판단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예가 된다.

우리의 느낌을 사로잡음

어느 날 교리와 성약을 읽던 중에 한 구절이 나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이 문제는…항상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고 가장 강렬하게 나를 사로잡아 왔도다.”(교성 128:1) 나는 이것이 성신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요셉 스미스는 적에게 쫓겨 다니며 수없이 혼란스러운 일을 당했으나,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한 주제는 얼마 동안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경험은 영이 마음을 밝혀 주며 영육을 기쁨으로 채워 주는 것과는 다른 경험이었다. 어떤 주제나 생각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것을 더욱 완전하게 이해할 때까지 거듭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영감의 방법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한 주제와 같이, 직접적인 계시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리와 성약 76편(15~19절 참조) 138편(1~11절 참조) 및 공식 선언문-2(소개 참조) 등은 모두가 세 분의 다른 예언자들이 주제에 대하여 얼마 동안 명상해 보도록 느낌을 받은 데서 나온 것이다.

#### 영이 못하게 하거나 행하게 함

영이 작용하는 다른 방법은 통제하는 것이다. 통제한다 함은 구속하고, 제한 또는 한계를 부과한다는 의미이다.

앰몬아이하의 사악한 주민들이 믿는 자들을 불태우려 했을 때, 앰올레크는 자신과 엘마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여 불길을 막자고 제언했다. 엘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의 영이 내게 손을 뻗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저들을 영광 중에 맞으시려 함이로다. 주께서 이 일을 이렇게 버려 두신 것…은 진노와 공의의 심판으로 이들을 치시겠음이라.”(엘마서 14:11) 주님은 엘마가 거룩한 계획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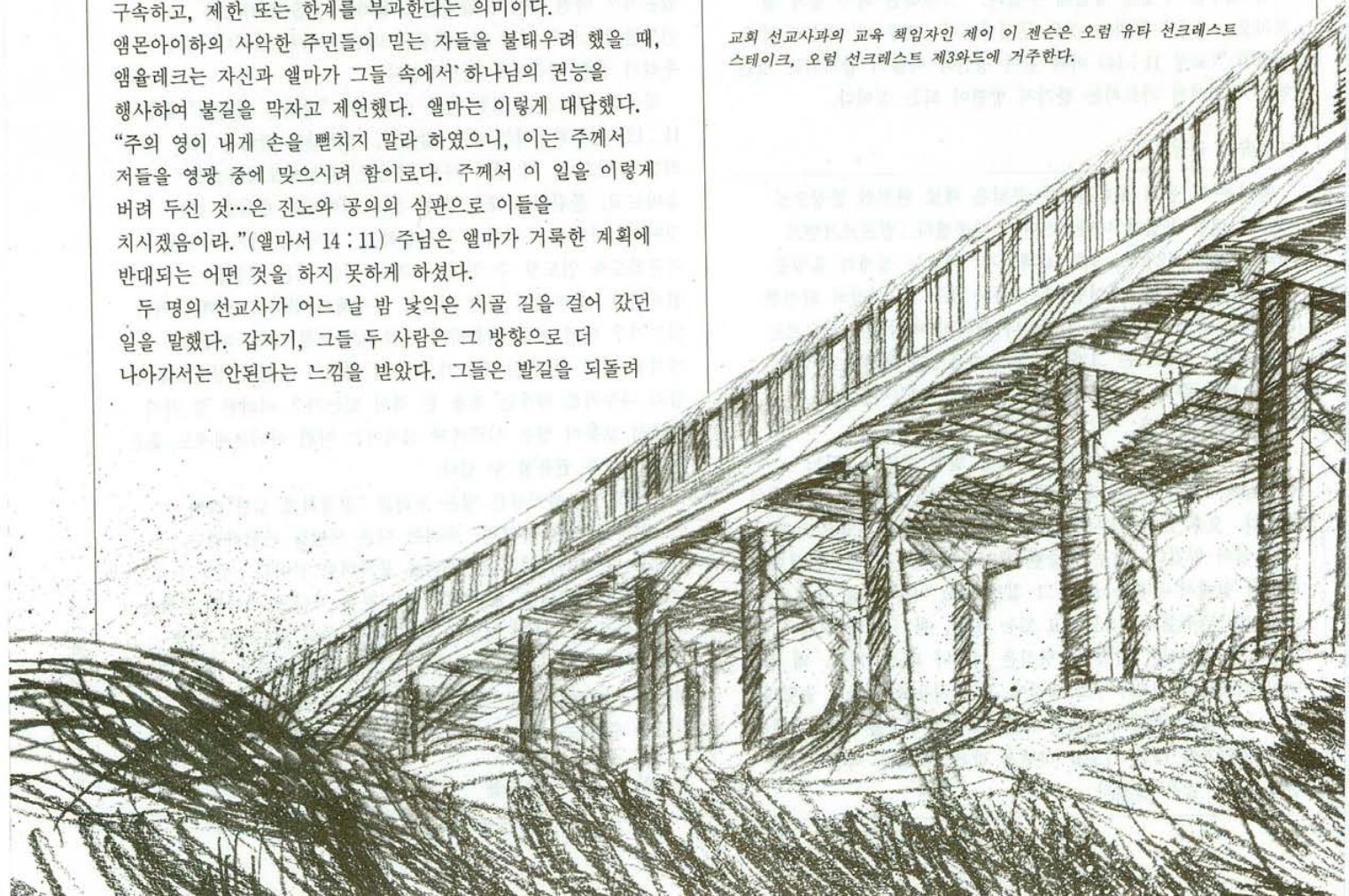
두 명의 선교사가 어느 날 밤 늦익은 시골 길을 걸어 갔던 일을 말했다. 갑자기, 그들 두 사람은 그 방향으로 더 나아가서는 안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발길을 되돌려

다른 길로 해서 집으로 왔다. 다음날 그들은 왜 멈추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번에는 한 낮에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 본 그들은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서 얼마 안되는 곳에, 다리가 끊겨 있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몇 가지 예는 영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는 영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억지로 하게 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생활에서 성령이 그 자신을 나타내는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돕도록 영감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교성 1:38; 46:29 참조)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능력이나 지식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교성 46:9~29 참조) 우리에게 사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요한복음 14:26 참조)

우리는 성신은 극적인 또는 특별한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작용하신다고 가정해서는 안된다. 주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성신을 동반자로 갖는 특권을 주셨다. 것처럼 위대한 은사로, 우리는 합당하기만 하다면, 영이 수 많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영이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영감을 주며 특별히 함께 하기 위해 역사하시는지를 더욱 잘 인식하게 될 것이다.\*

교회 선교사과의 교육 책임자인 제이 이 켈슨은 오렘 유타 선크레스트 스테이크, 오렘 선크레스트 제3와드에 거주한다.



# 답은 의문

한 낮에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 본  
그들은 그 전날 밤 왜 그  
익숙한 길을 따라 더  
나아가서는 안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 질의 응답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임.

요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하는 데에는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존 더블류 웰치 : 브리검 영 대학교 제이 루벤 클라크 법과 대학 법학 교수, 고대 탐구 및 몰몬 연구 재단 이사장.

**몰** 문경에 관한 가장 놀라운 사실의 하나는 요셉 스미스가 그 책을 번역하는 데 육십 오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책을 번역하는 데 걸린 기간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은 상당히 훌륭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여러 증인의 독자적인 증언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몰몬경은 1829년 4월 7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거의 다 번역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1828년 4월 12일에서 6월 14일 사이에 요셉은 마틴 해리스가 가족에게 보여 주려고 빌려 갔다가 잃어버린 116페이지를

번역했습니다. 그 밖에도, 1829년 3월에, 요셉은 “잠시 번역을 중지”(교성 5:30)하라는 명을 받기 전까지, 서기로 일한 그의 아내, 엠마와 함께 “몇” 페이지를 번역했습니다.

당시 요셉은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에 있었습니다. 약 160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서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뉴욕주 팔마이아의 스미스 가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요셉의 아버지에게 몰몬경이 번역되고 있는 판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1832년에 요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올리버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에게 나타나 “시현으로 판을 보여 주시고 또한 사업의 진실성과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 주셨다고 말했습니다.(딘 제시, 요셉 스미스의 개인 기록,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84], 8페이지) 동시에 1847년 요셉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의 편지에 쓰여진 대로, 요셉은 도움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며칠 후에 서기가 오게 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올리버는 1829년 4월 5일, 해가 질 무렵에 하모니에 도착했습니다. 4월 7일 화요일에, 요셉은 올리버를 서기로 하여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증하고 원본을 조사해 보면, 그들은 요셉이 번역하다 남겨 두었던 모사이야서부터 번역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자 요셉은 실제로 책의 중간에서부터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후 6월이 되기까지는 니파이일서와 니파이이서를 번역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것은 책의 나머지 부분과 조화를 이루는 니파이일서와 이서에 소개된 역사적 및 교리적 묘사와



함께 서로 잘 합쳐져 있습니다.

1829년 5월 15일까지 요셉은 모사이야서와 엘마서와 힐라맨서와 니파이인들 사이의 그리스도의 성역에 관해 기록한 니파이삼서를 번역했습니다. 특히 요셉과 올리버가 침례를 베푸는 권능에 대해 주님께 여쭙어 보도록 했던 것은 바로 니파이삼서 11장 22~27절로 추정되는 구세주의 성역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이 일로 같은 날 아론 신권이 회복되었으며, 그후 얼마 안되어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되었습니다.

5월말까지 그들은 니파이사서, 물몬서, 이더서, 모로나이서 및 표제지를 번역했는데, 그것은 물몬의 판 중에서 마지막 판이었습니다. 이때 데이비드 휘트머가 하모니에 도착했습니다. 6월 첫 주에, 데이비드, 올리버, 요셉 그리고 필경은 엠마도 말이 끄는 포장마차로 160킬로미터를 달려 뉴욕주, 페이에트에 있는 피터 휘트머의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1829년 6월 11일에, 물몬경의 판권은 뉴욕주 서지역 담당 연방 지방 법원에 기재되었습니다. 판권 신청서에 책의 내용에 관한 합법적인 설명문으로 표제지의 전체 내용이 활용되었으므로, 그때 이미 표제지가 번역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요셉과 엠마와 올리버가 페이에트에 정착하고 나자, 번역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올리버와 존 휘트머는 서기로 일했으며, 여기서 그들은 니파이일서와 니파이이서로 우리가 물몬경의 시작 부분으로 알고 있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6월 20일 경에, 그들은 니파이이서 27장 12절에 이르렀으며, 그것은 1829년 6월 그 당시에 세 목격자와 여덟 목격자가 판을 보게 된 토대가 되었습니다. 6월 말경에 번역이 완성되어 출판 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몬경의 번역은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그것은 4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85일간의 기간 동안에 완성되었습니다. 번역 이외에도, 그 기간 동안에 예언자와 서기는 다른 여러가지 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자고, 일자리도 찾고(일용포이 떨어지면 돈을 구하기 위해), 아론 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하이람과 사무엘 스미스를 개종시키고 침례주기 위해 48킬로미터 떨어진 뉴욕주, 콜스빌까지 적어도 한 번(어쩌면 두 번) 여행도 했으며, 하모니에서 페이에트로 이사로 하고, 물몬경 판권도 얻고, 페이에트 근처에서 며칠 동안 설교도 하며 여러 사람에게 침례를 주며, 세 목격자와 여덟 목격자와 함께 영적인 나타내심을 경험하고, 물몬경을 발간하기 위한 작업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예언자와 그의 서기들이 번역할 수 있었던 기간은 65일이나 그보다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루 평균 8페이지를 번역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율로 볼 때, 니파이일서를 번역하는 데에는 단 일주일 정도, 배냐민 왕의 말씀은 하루 반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물몬경의 복잡성과 일관성, 명백함, 예술성, 지적인 깊이와 통찰력을 생각해볼 때, 예언자 요셉의 번역은 놀라운 성취인 것입니다. 몇 년 후 올리버 카우드리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시절은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영감의 지시받은 음성을 들으면서 앉아 있을 때 가슴속 깊이 감사한 마음이 우러났습니다. 매일 매일 나는 계속하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가 물몬경을 번역해 갈 때에 나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적어 나갔습니다.”\*

# 잃어버린 진리의 회복

## 2부

길버트 더블류 샤프스

몰몬경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지 못했을 여러 가지 사항

이 3부작에서 말일성도 신학 연구원 교수인 길버트 더블류 샤프스는 몰몬경이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더해 주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지난 달의 기사에서, 그는 우리가 주님의 속죄의 희생과 보편적인 실체의 희생과 그것이 인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 크게 이해하고 있는 바를 토론했다. 샤프스 형제는 몰몬경이 제시하는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이번 호에 계속 전개시켜 나간다.

8. 모든 종족과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성약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으나, 몰몬경은 주께서 한 백성을 다른 백성보다 더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여하한 의문점도 풀어 주신다. 니파이이는 이렇게 가르쳤다. “[주는] 만인을 부르사 그의 선하심을 취하게 하시고,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면 겹거나 희거나, 속박된 자거나 자유인이거나, 남자나 여자이거나를 부인치 아니하시고, 이교도까지라도 기억하시리니,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함이라.”(니파이이서 26:33)

9. 구세주의 영향은 참으로 위대하여 인간의 양심을 밝혀 준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옳고 그름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나, 양심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고 있다. 모로나이는 그의 부친, 몰몬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기록했다.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즉,”(모로나이서 7:16) 인간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밝아진다는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직분의 역할에 새로운 차원을 제시한다.

10. 그리스도의 현신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를 거부할 권리도 있어야 한다. 달리 선택할 것이 없다면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참으로 충실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리하이는 이렇게 말했다.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마땅하니...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의로운 것이나 죄악이나 성스런 것이나 비참한 것이나 선이나 악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저 스스로 행동하게 하시었음에 사람이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리라.”(니파이이서 2:11, 16)

11. 미대륙의 힘과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 몰몬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는 미대륙의 국민들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땅(몰몬경 백성들의 약속의 땅)을 어느 백성이 차지하게 되든지 이 땅의 하나님 곧 그 나타나심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진대,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것이요, 종된 것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자유롭게 되리라.”(이더서 2:12)

몰몬경은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하여 반항함으로써 고대의 두 미대륙의 문명 사회가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이 약속의 땅에 사는 현대의 백성들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들 역시 멸망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2. 어떤 사람이나 국가의 진정한 자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몰몬경은 이 원리를 가르친다. 베나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며

“그를 머리로 하며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으며 너희를 자유롭게 할 자가 다시 없느니라.”(모사이야서 5:7~8)

이러한 자유는 두 가지 면에서 구세주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1) 구세주께서 타락의 결과를 극복해 내심으로써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2)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름으로써 죄의 속박의 결과를 극복하는 것이다. 리하이는 이렇게 가르쳤다. “인간은...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니파이이서 2:27)

13.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그리스도께서 모범이 되시는) 선행은 구원의 계획에 필수적인 것이다. 말일성도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는 강조하면서, 때로는 선행을 체쳐 놓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몰몬경은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예를 들면, 은혜라는 말이 수없이





Robert T. Barrett

언급되어 있다. 아들 야곱에게 말하는 중에, 리하이는 은혜가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적했다.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육신으로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없느니라.]”(니파이이서 2:8)

니파이는 또한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니파이이서 25:23) 가르쳤다.

그리스도의 자비에 의지할지라도, 선행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대륙에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사업을 행하도록 가르치셨다. “너희가 이를 알진대 교회에서 이를 행하며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면 복을 받아 마지막 날에 높이 들리우리니”(니파이삼서 27:21~22)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선행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중심이 되신다.

14. **몰몬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기본적인 정확성을 확인해 준다.** 유대인의 기록은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주장을 반박할 뿐만 아니라 그 책의 수많은 역사적 정확성과 정통성을 공격한다. 그러나 몰몬경은 성경의 확실성을 지지한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 그리스도의 성역과 가르침을 확인하며 이사야와 말라기와 요한이 그들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책을 썼음을 입증한다.

15.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상으로 널리 미친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이름은 현대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미대륙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을 내려 준 자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자라.”(니파이삼서 15:5) 야곱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의 선조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하였”(야곱서 4:5)다고 가르쳤다. 니파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들리우실 것이라고 가르쳤다.(니파이일서 19:10)

16. **예수 그리스도의 전세의 영은 그의 육신과 비슷하게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얻기 전의 본질에 관한 논쟁은 대부분의 기독교계에서는 아직도 확립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했었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가 지상의 성역을 베풀기 이전년도 더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야렛의 동생으로 알려진 몰몬경의 예언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보라 네가 지금 보는바 나의 몸은 영체라...이제 내가 네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같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이리라.”(이더서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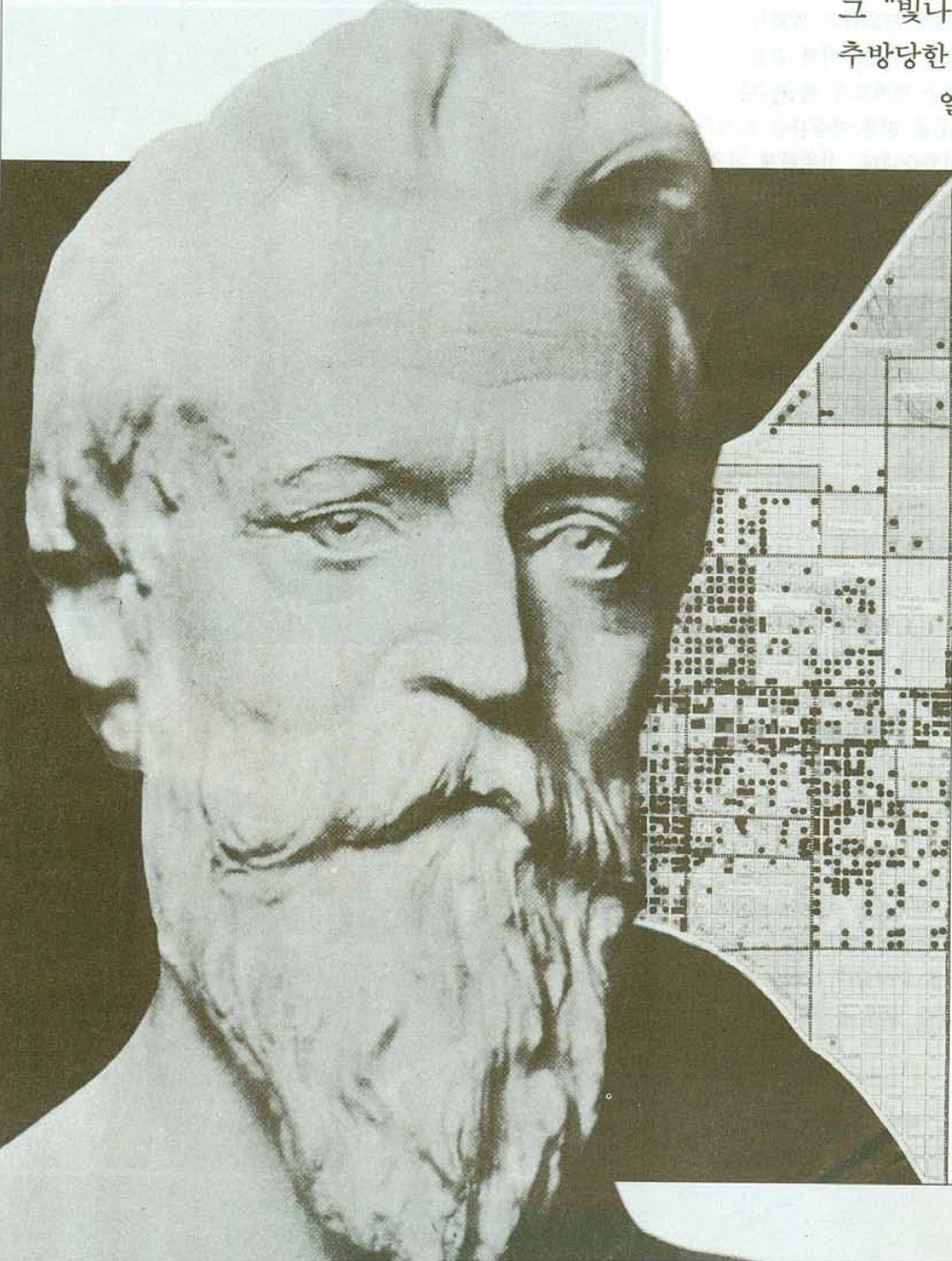
여호와를 본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은 그를 묘사할 때 “대면하여”(출애굽기 33:11)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야렛의 동생이 겪은 경험은 이러한 말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출애굽기 33:11; 이사야서 6:1 참조)

# 텅 빈 나무의 거리

토마스 엘 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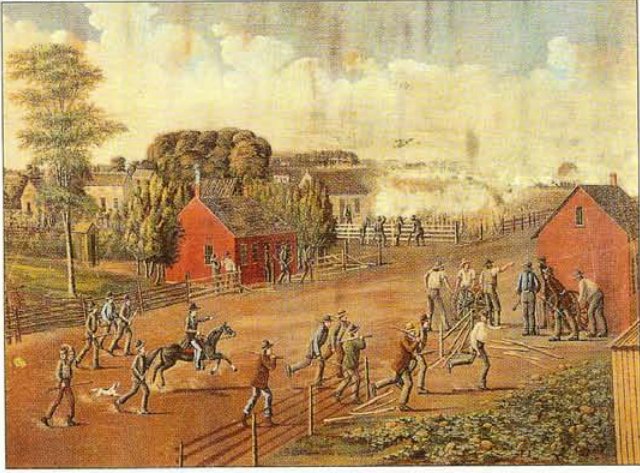
[1822~1883]

그 “빛나는 도시”가 황폐해 졌으며,  
추방당한 성도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게 된 한 비회원의 이야기



**토**마스 레이퍼 케인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으나, 종교적인 박해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말일성도들의 훌륭한 친구였다. 여러 차례 그는 정부와 물문 개척자들 사이의 오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미국의 남북 전쟁시 영예롭게 복무했으며, 그후 그가 1822년에 태어난 곳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철도 건설 및 광산 개발을 감독하였다. 1850년 3월 26일 펜실베이니아 역사 협회 연설에서, 그는 1846년 일리노이주 나무시를 방문했던 일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 당시는 폭도들이 잔류하던 성도들을 내어 쫓고 그 도시를 점거한지 얼마되지 않은 때였다. 이 기사는 그 당시 연설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나무에 도착하기 전에, 케인은 보트 및 마차를 타고 여행하며 거처은 아이오아 지역을 “말 도둑 등등의 위법자들”이 피신하기에 알맞은 곳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주위가 온통 지저분하고, 방랑자와 게으른 이주민이 살고 있으며, 토지는 전혀 개간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언덕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때 너무도 이와 같은 풍경에 대조를 이루는 광경이 나의 눈을 번쩍뜨게 했습니다. 활모양으로 굽이친 강줄기를 따라 반원을 이룬 아름다운 도시가 신선한 아침의 태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뜻하게 지은 새 집들은 둥근 지붕 형태의 우뚝 선 언덕 주위에 펼쳐진 신선한 푸른 정원 사이에 정연히 늘어서 있었으며, 언덕의 꼭대기에는 하얗게 번쩍이는 찬란한 첨탑이 있는 우아한 대리석 건축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심지는 수마일까지 뻗어 있었으며, 도시 뒷편 들판에는 잘 경작된 토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눈에 띄는 풍부한 산업, 기업, 교육 시설의 행적은 매우 독특하고 뛰어난 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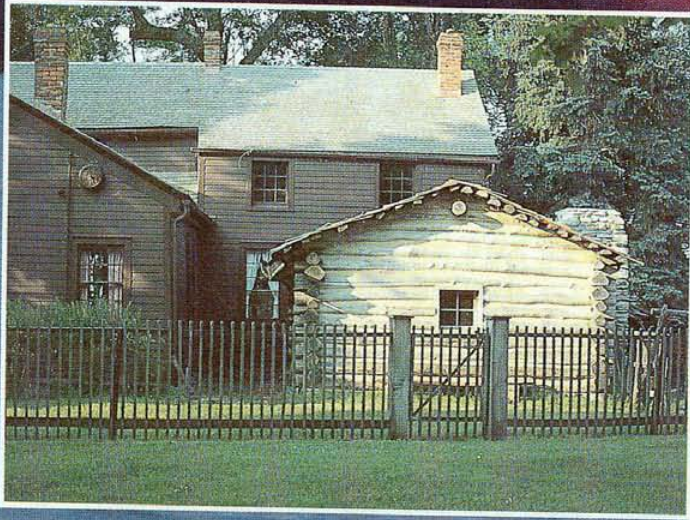
케인은 조그만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그 도시로 들어섰다.

아무도 눈에 띄는 사람이라곤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너무 적막하여 파리가 웅웅거리며 내는 소리와 물결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적막한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도시는 마치 외로움이라는 최면술에 걸려 꿈 속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잠에 빠진지 오래된 것 같지 않은 이 도시를 내가 잠에서 깨어나게 할까봐 두렵기 까지 하였습니다. 잘 닦여진 도로에는 풀 한포기 돌아나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발자국도 아직 비에 씻기지 않았습니다.

케인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목재와 가죽 제품, 그리고 철제품이 쌓여 있으며, 연장과 도구들도 직공들이 놓아 둔 채로 있는 공장과 상가 사이를 걸어갔다. 그는 잘 가꾼 정원으로 들어가서 과일과 야채 및 꽃을 살펴 본 후, 우물가에서 물 한 모금을 마셨다.

내게 창문을 열고 부르는 사람이나, 튀어 나와 짓어대는 개들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집 안에 숨어 있나 하고 생각할





“나부 전투”, 시시 에이 크리스텐슨 작  
 나부의 타임즈 엔드 시즌스 건물 이곳에서 1839년부터  
 1846년 사이에 물론경 교리와 성약, 찬송가 및 기타 책들이  
 출판되었다.

조나단 브라우닝의 침실  
 개종자인 브라우닝은 최초로 자동 권총을 발명한 사람 중 한  
 명이다. 요셉 스미스 가족이 나부에서 최초로 지은 집인 요셉  
 스미스 홈스테드가 건축되는 동안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두막 집. 이 오두막 집은 복원 발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의해 재건되었다. 사진 디 브라운, 배경 나부시 앞을  
 흐르는 미시시피강.

“나부 성전”, 시시 에이 크리스텐슨 작



정도였으나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난로 위에는 식은 재가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맨 마루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발끝으로 걸어야 했습니다.

도시 외곽에는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역병이 휩쓸었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신교도들의 묘지와도 크게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어떤 흙무덤은 잔디로 덮힌 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어떤 비석은 최근 날짜로 된 새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케인은 마을 건너편 들판에 있는 곡식이 추수되지 않은 채 땅에서 썩어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도시 남쪽 교외를 걷다가, 두 가지 중요한 발견을 하였다.

도심지 교외에 있는 목조 가옥들이 파괴되고 벽은 기초까지 무너져 버려서 최근에 폭격을 당하여 파괴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중에서 가장 경탄을 금치 못했던 아름다운 성전 주위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소총과 중무기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의 신분을 물으면서 왜 이곳 지휘관의 허가장도 없이 강을 건너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독한 술을 마시고 조금 취해 있는 듯 하였으나 내가 지나가는 외인이라고 신분을 밝히자 그들은 나에게 호감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죽은 도시가 제조업과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이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년 동안 전쟁을 일으켜, 마침내 내가 그곳을 방문하기 불과 며칠 전에, 폐허가 된 교외에서 전쟁을 하여 승리한 후, 그곳 주민들을 모두 총검으로 위협하여 추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완강하게 버티었지만 셋째되는 날의 폭격에 항복했다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그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다고 크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그 중 하나는 기억하건대 그들이 그 운명적인 도시에 거주한지 얼마되지 않은

열 다섯 살된 소년과 그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두 사람이 흠잡을 데 없는 성품을 지녔다고 인정했습니다.

케인은 침략자들이 파괴시킨 “진기한 성전의 조각이 새겨진 큰 벽면”을 보았다. 그는 그 건물의 다양한 특색을 보았는데, 그 중에 침례당은 “대리석으로 된 실물 크기의 황소 열두 마리가 지탱해 주는 크고도 깊게 파인 대리석 수반”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전에는 안식일에 밝게 빛났던 침탑으로 올라가 볼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그곳에서 동쪽과 남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내가 도시 근처에서 보았던 것 같은 버려진 농장은 그 끝을 알아내기 힘들 정도로 광활하게 펼쳐 있었습니다. 이곳에 신이 노하여 막 버락을 치고난 뒤의 흔적과도 같이 음식 조각과 술병과 깨진 술잔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녁 늦게 다시 나의 행로를 재촉하여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일몰 후의 바람은 상쾌했으며 출렁이는 물결은 뱃전을 때렸습니다. 나는 아침에 떠난 곳보다 약간 상류쪽을 향하여 나아갔으며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곳에 정박하였습니다.

암흑 만이 사방을 뒤덮고 지붕도 없는 이곳에서 나는 수백 명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내가 다가가자 겨우 눈을 뜨고 부시시 잠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를 인도해 준 그 “희미한 불빛”은 한 여인이 열병으로 죽어가는 남자를 돌보면서 사용한 촛불이었다. 그 근처에는 어린 소녀 두 명이 흐느껴 울면서 암흑 속에 앉아 있었다. 케인은 이러한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매일 지리한 낮과 밤이 교차되는 동안 추위와 피약별에 경련을 일으키는 이들 쫓겨난 사람들의 고난은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질병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은 가정도, 병원도, 집도, 도움을 받을 만한 친구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간호를 할 수 없었으며, 굶주린 어린 아이들이 보채는 것을 달래줄 만한 빵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기, 딸과 조부모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좀더 편하게 해 주기 위하여 잠자리를 모두 병자에게 덮어 주고 그들은 한 누더기 하나로 밖에서 노숙했습니다.

1846년 9월 네째 주, 아이오와 리 카운티에서 굶주리고 있는 이들은 다름아닌 바로 몰몬이었습니다. 내가 방문했던 도시는 일리노이주 나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와 주변의 풍성한 농토의 주인은 바로 몰몬이었으며, 그들 몰몬이 경작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몰몬의 망치 소리, 도끼 소리, 재봉틀 소리, 작업소의 바퀴 돌리는 소리를 멈추게 하고, 그들의 불을 꺼뜨리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과수원을 더럽히고, 아직 추수하지 않은 수천 에이커의 농경지를 짓밟은 사람들은 나무를 지키면서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으며 술에 취하여 난장판을 벌이고 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내가 강가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도시를 마지막으로 떠난 몰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일년 전에, 그들이 집을 떠나 다른 은신처를 찾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침략자와 맺은 협정이었습니다. 몰몬의 지도자인 장로들은 굳센 믿음을 지니고 가족을 이끌고 1846년 봄에 서부를 향하여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나머지 몰몬들은 일리노이주에 평화롭게 거주하면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들 탐험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여 캘리포니아주 록키 산맥 건너편 등지나 그의 장소에서 새로 거주할 곳을 택할 때까지, 그리고 남기고 떠나야 하는 재산을 잘 처분할 수 있을 때까지 남아 있어도 된다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기다린 기간은 몰몬 이주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만큼 멀리갔다고 판단했을 때까지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부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다시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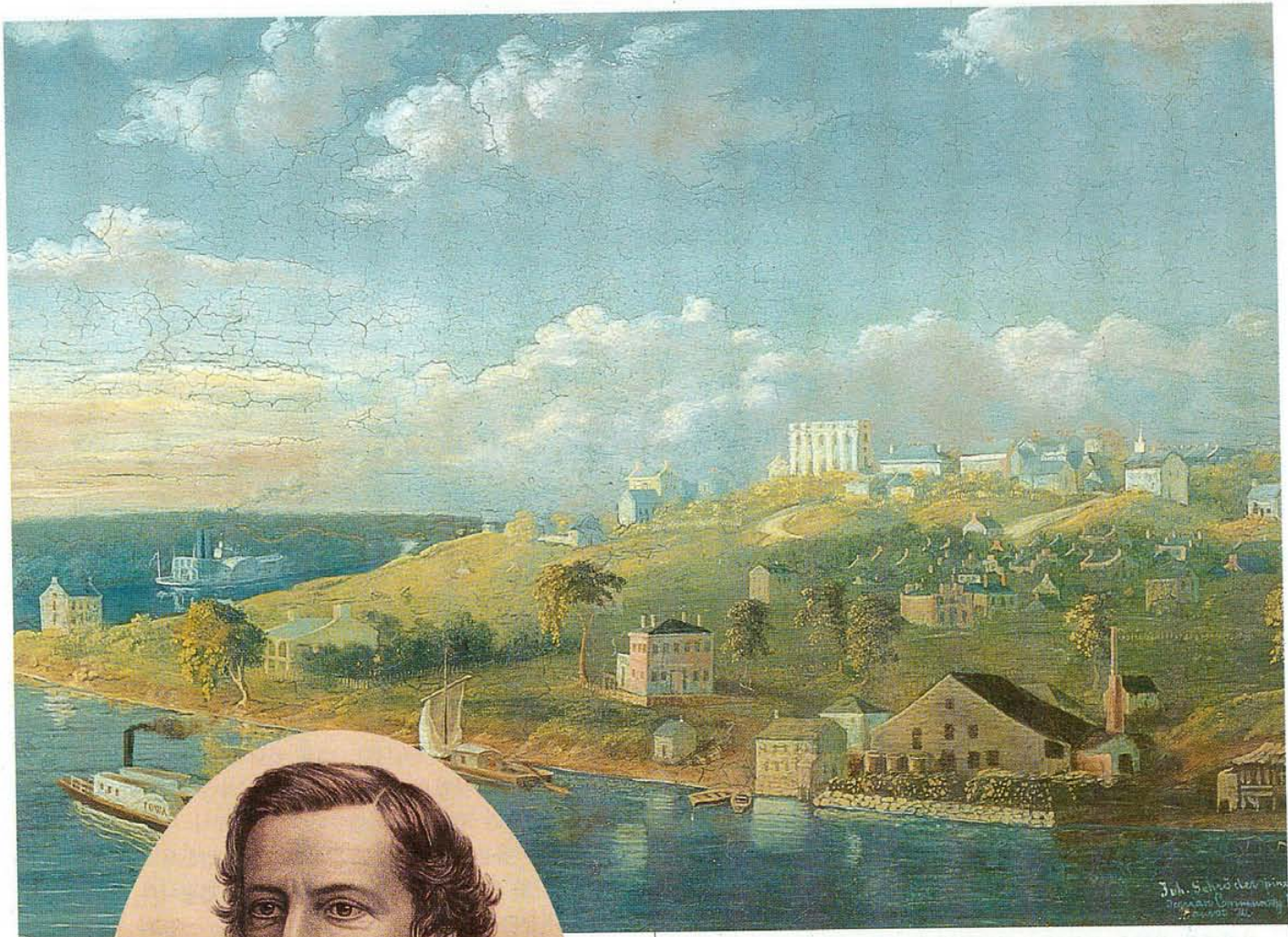
케인은 성도들이 남아있기로 한 협정 기간 동안 성전을 세우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상한 말 같지만, 그들은 그 유예 기간 동안 주로 그들의...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데 헌신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유대인들이 분산된 이후, 물론만큼 이러한 건축물에 집착한 예가 없을 것입니다. 그 건축의 설립이 그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의무로서 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장엄하게 세워지면서 미시시피강 상류 지역에 여행하는 사람들의 주된 찬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들은 그로인해 그 도시에 부여된 영예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사랑의 노고로써 세웠으며, 그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바친 헌물과 심일조가 50만불에 달했습니다. 장신구나 저축한 돈을 바치지 않은 몰몬 여인은 없을 것이며, 가장 빈한한 몰몬 남자일지라도 한 달 이상 그 벽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적들이 그들을 무자비하게 내몰았지만, 그들은 적들의 총검을 피하여 마침내 높은 첨탑 위에 나팔부는 천사를 도금하는 것까지 완성하였습니다.

완성된 성전은 1846년 5월에 헌납되었다. 성스러운 헌납 의식을 마친 성도들은 그 성전에서 폭도들이 신성 모독할 만한 물건과 값어치있는 물건들을 치웠다.

[그 일] 밤 늦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모든 기구 및 가구 등, 적들의 비웃음을 살 만한 모든 물건이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제거할 수 없는 일부 부착물을 제외하고서는 맨 벽이 드러나도록 철거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날, 나머지 장로들과 가장 큰 무리가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이오와 주민들은 나에게, 그들[성도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끝없이 행렬을 지어 서부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주민들은 그들이 크게 슬퍼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덕을 넘을 때마다 그들이 버리고 떠난 집과 멀리 보이는 성전 및 성전의 빛나는 뿔족탑을 돌아다 보았다고 합니다.



케인은 나부를 방문하기 전에, 서부로 가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하거나 노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복음에 대한 그들의 간증이 참되고도 진지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는 성도의 희생과 굶주림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현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유타주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세 번 방문하였으며, 그곳에서 큰 환영을 받았다. 그는 1877년 브리검 영 대관장의 사망시 마지막으로 방문하였다. 그는 브리검 영의 “영도력”에 힘입어 성도들이 번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1833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임종하기 몇 시간 전 아내에게 “나의 물몬 친구들—나의 친애하는 모든 물몬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메시지를”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일리노이주 나부시”, 1859년 존 슈뢰더 작, 성도들이 도시를 떠난지 약 13년 후의 모습. 언덕 위에서 있는 크고 흰 건물은 폭도들과 폭풍우 및 화재로 인해 훼손되어 더럽혀진 나부 성전이다.

토마스 앨 케인의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장교였던 모습

# 알콜 중독자의 딸

에마 브랙

내가 남편과 아들과 함께 처녀때 살았던  
마을로 다시 이사했을 때부터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재인은 비회원이었으며  
여러 해 동안 음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우리가 이사했을 때

남편과 어린 딸,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웃들은  
그녀의 가족과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함으로써



어느 날 제인은 나에게 알콜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곳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인은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예전처럼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련되는 것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록 고등학교 때부터 그녀의 거친 성격과 주벽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간호원으로서 지닌 동정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바쁘다 해도 고통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밤중이라도 달려가는 것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쁘지만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나는 그녀의 좋은 자질들을 받아들이고 소문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그 소문들이 모두 헛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인은 알콜 중독자였습니다. 술만 취하면 무슨 일이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술이 깨면 좋은 아내였고 모범적인 어머니였으며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녀가 주벽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죽도록 마셔댔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려 노력했으며, 고통스런 마음으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나는 제인에게 다만 사랑과 우정만을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인의 딸 메리와 나의 아들은 나이가 비슷했으므로 나는 가족 활동에 메리를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볼 때와 소풍 또는 야외 활동에 메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메리는 제인이 술취해 제정신이 아닐 때도 우리와 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느 날 제인이 갈색 종이 가방에 술병을 잔뜩 담아 들고 술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제인은 메리의 손을 내게 쥐어주며 집에 데려다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인의 어머니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나는 메리를 돌보며 메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했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우리 두 가족 사이에는 강한 유대가 쌓여갔습니다. 나는 어린 메리가 복음의 가르침을 너무도 빨리 받아들이는 것에 놀랐습니다. 메리는 세살 때부터 음식 축복하기를 고집했으며 일상 생활에서 모범과 교훈을 보여 주면서 그녀의 가정에 복음을 조금씩 조금씩 들여갔습니다.

제인은 메리에 대한 사랑과 좋은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자신의 주벽에 대한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제인은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인은 나에게 알콜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곳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못견디고 절망 가운데 주저 앉았습니다. 그러나 제인은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예전처럼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치료비가 비쌌지만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필요한 돈을 모았습니다. 수 개월간 그녀는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후에 제인은 그 당시를 번민과 고통으로 가득찬 문자 그대로 지옥이었다고 비유했습니다.

제인이 떠나 있을 때 나는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편지에서는 기도의 가치를 언급한 후 기도가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를 강조했습니다. 훗날 그녀가 지갑에서 여러 번 읽어 갈갈이 찢어져 누더기가 된 편지를 간증 모임 때마다 그 내용 일부를 읽느라고 꺼낼 때까지 나는 그 편지가 제인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몰랐습니다.

제인은 해냈습니다. 그녀는 완치된 극소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건강을 사실상 잃게 되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녀는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인이 나와 남편에게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제인은 열 살이 다 된 메리가 침례받기를 원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 자신도 침례받고 싶다고 제인이 말할 때였습니다. 제인은 남편이 그들 모녀를 침례주기를 원했습니다.

제인과 메리는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제인의 남편과 어머니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메리가 한 젊은이를 내게 데리고 와서 그들이 결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육 개월 후 메리와 그 젊은이는 결혼했으며 제인의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되었습니다. 기적이 성취되었습니다. \*

(제인과 메리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피**터 노드호프는 방 안을 거닐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연차 대회가 방송되고 있었고 한 친구의 우정 증진을 통해 최근에 다시 활동적인 회원이 된 그의 아내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터와 앤드리나는 교회에서 성장하였으며 성전 결혼을 했으나, 거의 십 년간 교회 모임에 그리 크게 참여해 오지 않았다. 첫째로 그는 일로 인해 일요일에는 매우 바빴다. 직업이 바뀌게 되자 그들은 일요일을 함께 긴장을 푸는 날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요일의 그 대회가 그들의 생활을 바꿔 놓았다.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대변자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에게 두번째 탄생과 같았습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내와 딸이 영원토록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하고 피터는 말했다. 그날 오후 피터와 앤드리나는 그들의 감독을 만나러 갔다.

“우리는 매우 빨리 활동이 저조한 회원에서 너무 활동적인 회원으로 되었습니다.”하고 앤드리나는 웃으며 회상한다.

####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노드호프 가족처럼 우리도 주님의 예언자의 권고를 듣고 따르기만 하면 그

## 자녀에게 예언자를 따르도록 가르침



말씀에 의해 모두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예언자”와 “살아 있는 경전”과 함께 그분의 “살아 있는 교회”를 회복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닐 에이 맥스웰, 현대 세상을 위한 경전, 폴 알 치스맨 및 씨 윌프레드 그릭스 편집, 프로보: 종교 연구 센터, 1984년, 1페이지) 오늘날 지상에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교회의 예언자라고 언급할 때에는 대제사장인 교회의 대관장을 의미한다. 그는 교회 회원들에 의해 예언자, 선견자며 계시자로 지지받는다. 그는 “왕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 (교성 81:2 참조) 예언자는 그의 보좌들과 함께 교회의 대관장단을 구성한다. 우리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를 예언자, 선견자며 계시자로 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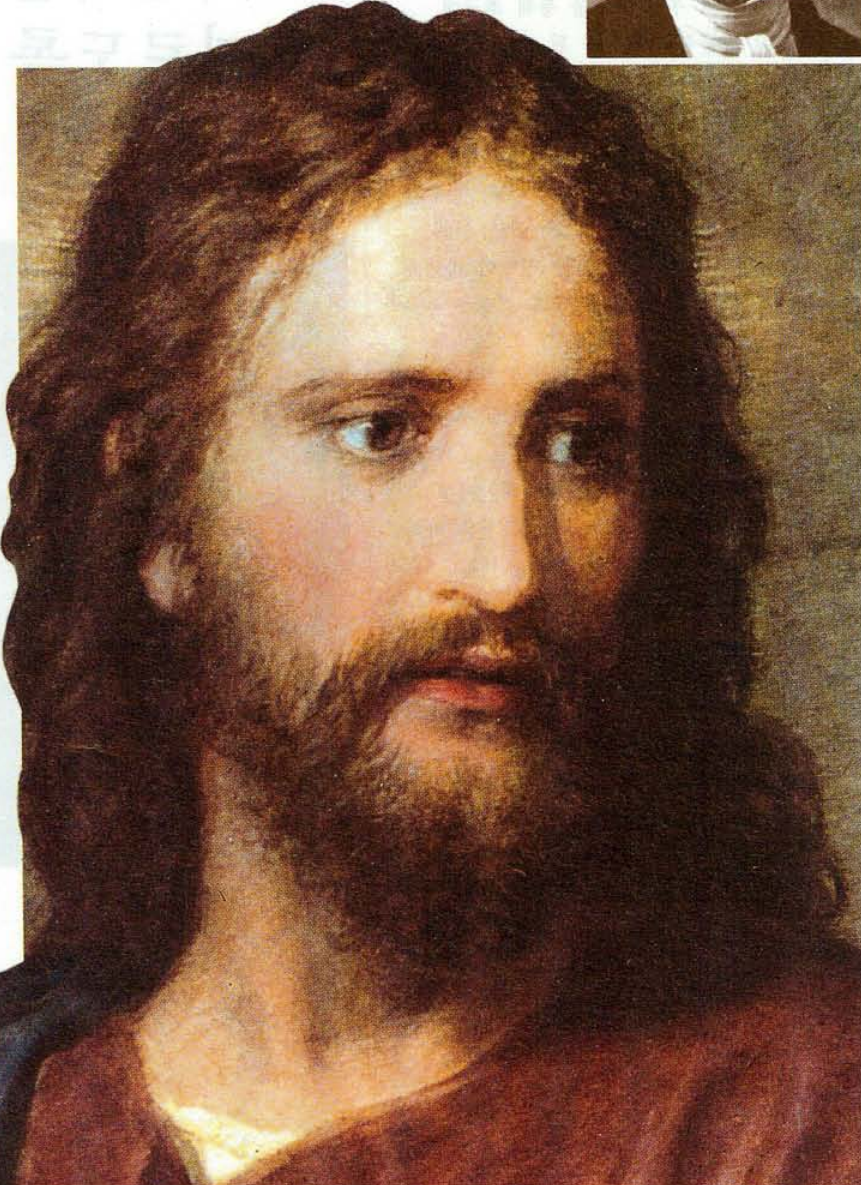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회에서 정원회, 와드, 스테이크 및 그의 조직을 감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감리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관장단은 교회의 모든 회장단을 감리하는 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도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완전한 신권”(교성 124:28) 및 지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왕국의 열쇠”(교성 81:2)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교회의 대관장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선임

사도이기 때문에 그 높은 영화로운  
 위치에서 봉사한다. 그는 지상에서  
 감리하시는 예언자로서 그를 통하여  
 지상에 계시가 주어지게  
 된다.”(신앙개조의 새로운 증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85년, 348~50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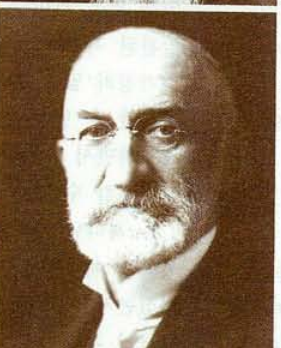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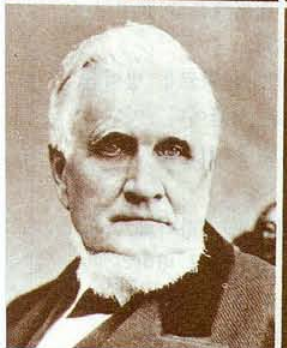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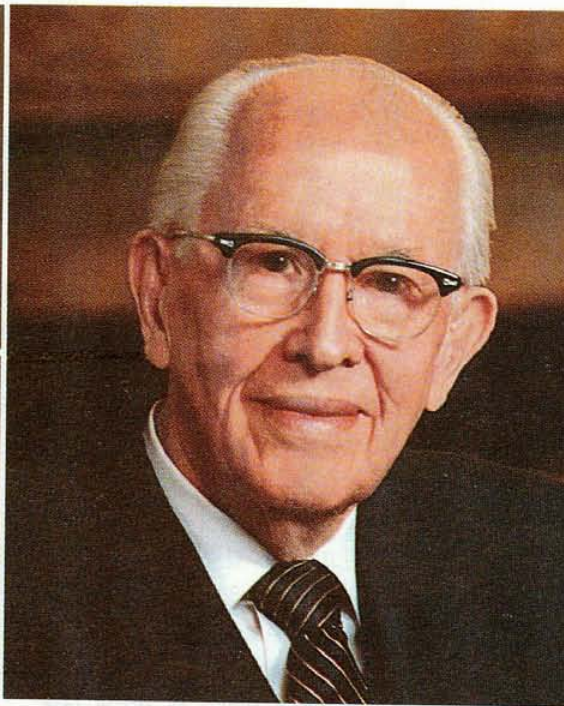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하늘이 닫혔으며 세상의 시련을  
 혼자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말일성도로서 주님께서서  
 그분의 예언자를 통하여 현재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아모스 3:7 참조)

부모는 이러한 진리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토론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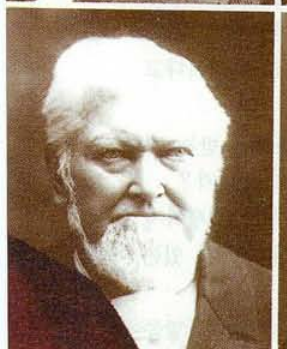
1. 얼마나 많은 예언자의 이름을 말할 수 있나?
2. 우리 시대에 복음을 회복한 예언자는 누구였는가? 그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3. 요셉 스미스 이후에 지상에는 예언자가 있었는가? 몇 명이 있었는가? 그분들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가?
4. 예언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가?



주님은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서  
 그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언자의 말씀은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하실 말씀으로서  
 ...바로 경전과 같은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첫번째  
 예언자는 그의 뒤를 이은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왼쪽 위부터 아래로 : 브리감  
 영(1847년부터 1877년까지  
 교회 대관장으로 봉사), 존  
 테일러(1880~1887), 로렌조  
 스노우(1898~1901), 조셉  
 에프 스미스(1901~1918),  
 히버 제이  
 그랜트(1918~1945), 조지  
 앨버트 스미스(1945~1951),  
 데이비드 오  
 백케이(1951~1970), 조셉  
 필딩 스미스(1970~1972),  
 해롤드 비 리(1972~1973),  
 스펜서 더블류  
 킴블(1973~1985), 에즈라  
 테프트 벤슨(1985~ )



## 지도와 권고

자녀들은 예언자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으며 합당한 신권의 권능을 통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 계신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그분의 신성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예언자는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불의한 사람에게 회개를 외친다.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님으로부터 계시와 지시를 받으며, 세상에 경고하기 위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지상의 온 주민들과 특히 교회의 회원들에게 대관장단을 비롯한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서 오늘날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대관장단의 말씀은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하실 말씀으로서… 바로 경전과 같은 것입니다.”(매리온 지름니, 연차 대회, 1945년 4월)

세상은 계속 변화하며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현대의 문제점에 대해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다. 이 권고의 말씀은 연차 대회나 스테이크 대회, 교회 잡지, 공과 교재 및 기타 시청각 자료 등 교회 출판물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배우고 인간의 자녀에게 이미 전파되었으며 또한 앞으로

나타날…주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교성 11:21~22 참조)

“내가 예언자의 말씀을 즐겨 공부하는 방법은 교회 잡지에 있는 대회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영감받은 말씀을 몇 번이라도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일상 생활 가운데 일을 할 때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통해 나올 때 나에게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해줍니다.”하고 맥신 존슨은 말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최근에 권고하시는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연차 대회의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을 연구할 것이다.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파이언스 장로는 한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 가족은 이 대회가 끝난 후에 매우 특별한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대회의 말씀을 실은 성도의 벗이 각 가정에 배달되면 그 가족은 곧바로 그 말씀을 읽으며 자녀들은 그 말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가장이 ‘우리 가족은 연차 대회를 우리가 열성을 다 쏟아야 할 일을 열거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회는 우리 부부와 아이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번 연차 대회에서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얼마 만큼의 뜻을 지니게 되겠습니까? 부모로서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연차 대회, 1974년 10월)

교회 초기에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예언자의 권고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시하셨다.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성 1:38 참조)

이 시대에 모든 주제와 문제에 대해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순된 충고나 규정을 제시할 때 우리는 진리를 위한 하나의 근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말일의 예언자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맹목적으로 시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일관된 지도력이 있다.

가정의 밤은 예언자를 따르는 방법을 토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자녀와 토론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하이와 그의 가족을 예루살렘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셨는지 기억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어떤 위험에 대해 벤슨 대관장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가?

2. 오늘날 예언자께서 받는 계시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가?

3. 우리 가족이 현재 실행하지 못한 예언자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4. 우리 가족이 예언자의 말씀에 좀



예언자들은 종종 교회 회원들이  
 그분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해 왔다. 그러한 기도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강화시켜 준다.

더 주의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언자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예언자들은 종종 교회 회원들이  
 그분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해 왔다. 그러한 기도는  
 그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강화시켜  
 준다. 어떤 가족은 예언자의 거룩한  
 부름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 축복이 오는 것을 알았다. 예언자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난 직후 그  
 가족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버지는 그 위대한 예언자가 복음을  
 전파하던 때에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렸고 그전의 모든 예언자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였고 특히 교회의  
 새로운 대관장이신 헤들드 비리  
 대관장님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렸다.  
 그는 자녀들이 새 예언자와 친해지고  
 새 예언자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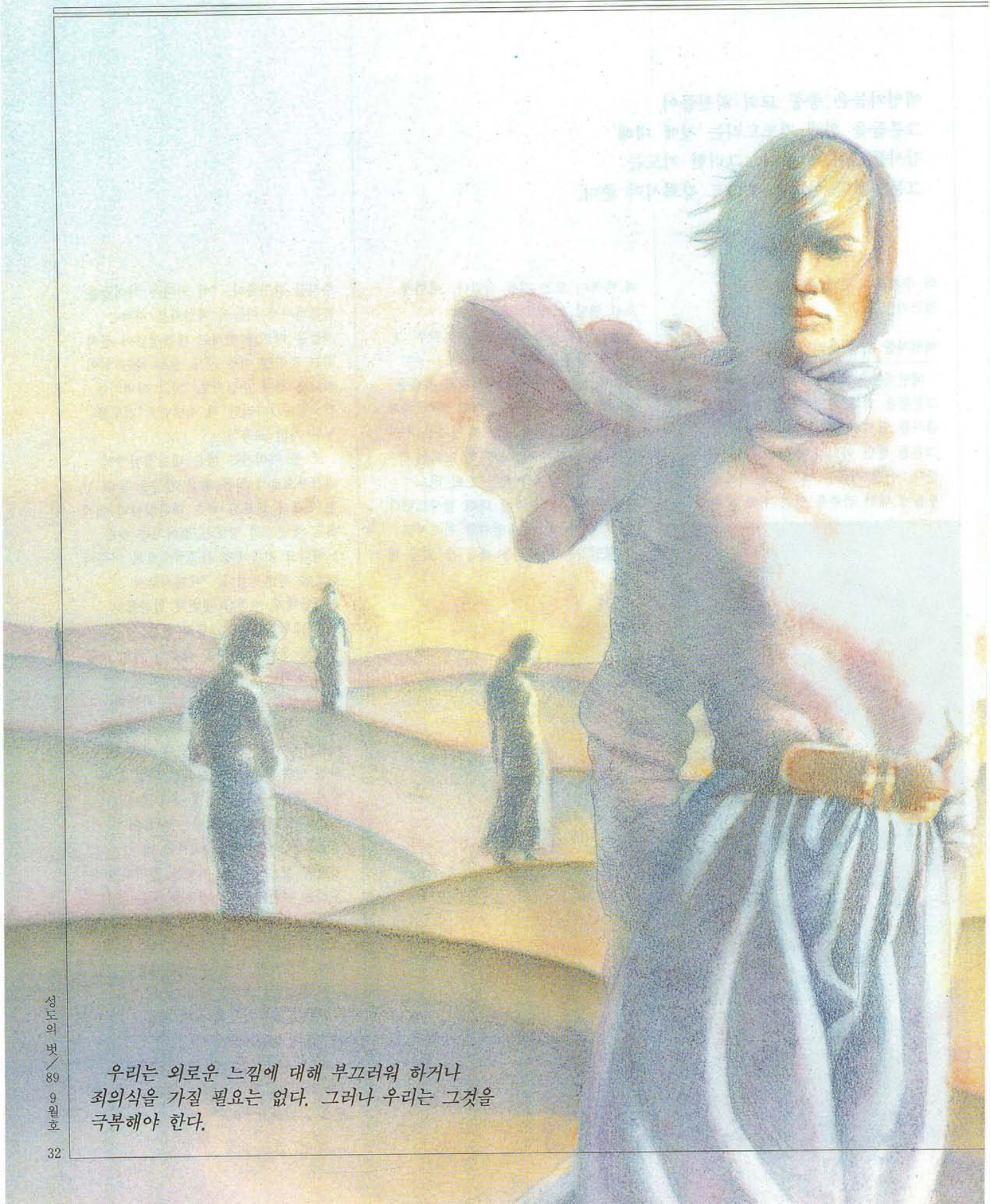


주시길 간구했다. ‘이 귀여운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이 예언자를 따르는  
 자들을 따르게 하시고 대관장님이 원치  
 않는 것이면 어떤 것도 결코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하고 아버지는  
 기도했다. (마리안 피 소렌슨, “기도를  
 통한 자녀 교육”)

또 한 아버지는 벤슨 대관장님께서  
 대관장으로서 처음 하신 말씀을 듣고 난  
 후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의 어깨  
 위로 예언자의 망토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가족에게 간증함으로써 가족의  
 간증을 강화시켰다. “예언자로서  
 회원들에게 행하신 첫번째 말씀에서  
 벤슨 대관장님은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및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하며 의를  
 위해 일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도중 사랑의  
 영이 그를 감쌌으므로 그는 이 새로운  
 대관장님께서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하실 말씀을 말하고 계심을 의심 없이  
 알게 되었다고 가족에게 설명했다.

가족이 기도하는 것은 자녀들이  
 예언자를 따르도록 가르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예언자 및  
 기타 지도자를 도울 수 있는가?
2.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자를 도우시도록 어떤 것을  
 간구해야 하는가?
3. 우리는 예언자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좀더 강하게 들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



우리는 외로운 느낌에 대해 부끄러워 하거나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헬렌 링거

나는 얼마 전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노년의 모임에 참석했다. 주제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였다. 모임중 토론을 하면서 나는 그곳에 참석한 대부분의 자매들이 과거에 혼자 지냈을 뿐만 아니라 종종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결혼한 사람이든지 남편과 사별한 사람이든지 또는 이혼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사람들은 가족이나 군중 가운데 둘러 싸여 있을 때에나 일을 할 때에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활동적인 신권 소유자와 결혼한 교회 자매조차 때때로 혼자 지내면서 혼자 있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외롭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젊었을 때는 때때로 어린 자녀나 그외의 상황으로 인하여 집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러므로 혼자 있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치유해야 하는 위험한 질병과도 같은 외로운 느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사람은 혼자서 조용하고 깊은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가끔 의도적으로 이런 시간을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 스미스는 개인적인 시간을 찾았던 사람들의 좋은 예이다. 그리스도는 40일간 광야로 들어갔었다. (마태복음 4:1~11 참조) 요셉 스미스는 숲으로 갔다. (요셉 스미스 2:14~17 참조)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 스미스의 생애를 살펴 보면 그분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닌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라. (마태복음 15:22~34 참조) 리버티 감옥에 있는 요셉 스미스를 기억해 보라. (교성 121: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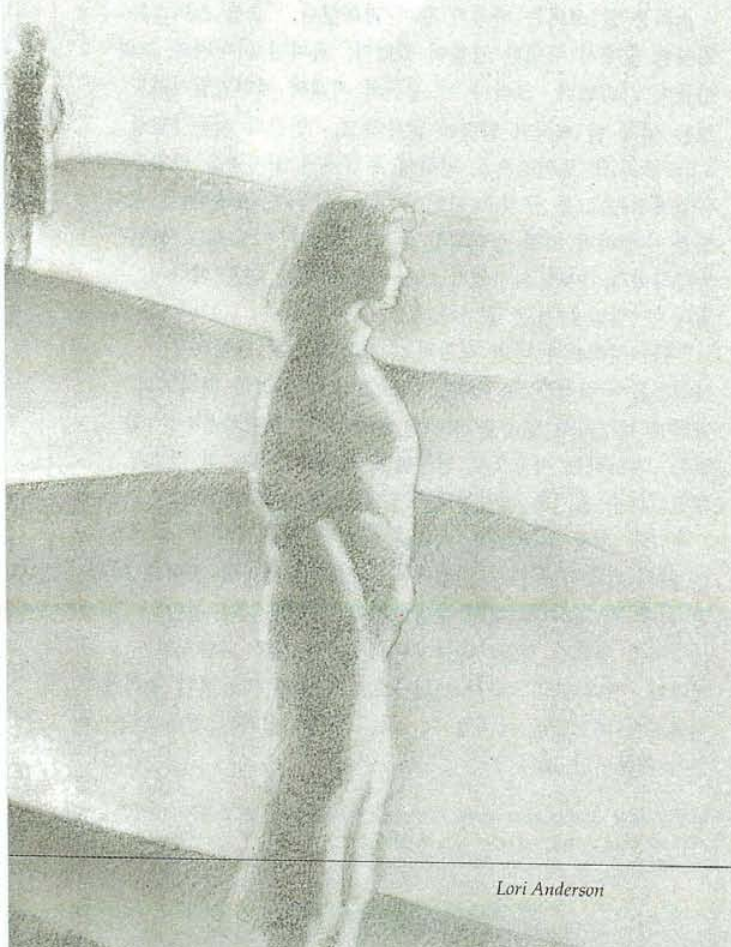
비록 우리 자신은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외로움은 그분들에게 닦쳤던 것과 똑같은 영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운 느낌에 대해 부끄러워 하거나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개인이 그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자기 연민, 비판, 노여움, 부당한 비난 및 불평이다. 이 방법으로 우리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두번째 방법은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올바른 방법으로서 교회나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발이 없는 사람을 볼 때까지는 신발이 없는 것을 슬프게 생각했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비록 혼자일지라도 뜻있는 활동에 참여할 때 우리는 평온한 느낌을 받게 된다.

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다. 어렸을 때 나는 훌륭하고 친절하지만 지나치게 바쁜 아버지를 모시는 축복을 받았다. 아버지는 교회 활동과 정치 일에 매우 활동적으로 참여하여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으셨다.

나의 장래에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 역시 아버지처럼 교회와 정치 일로 바빠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스위스 군대에서 근무해야 했다.

정말 나는 대단히 화가날 때도 있어서 그럴 때는 정치와 군대를 철폐하고 교회 일을 재 정리해서 내가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아이들도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갖게 하고 싶었다. 교회에서는 비판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까봐 어떤



자매에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불평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다.

몇년 전 나는 전 관리 감독의 아내인 루이스 브라운 자매의 말을 들은 후 태도가 변하게 되었다. 그녀는 나 혼자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확신을 주었다. 브라운 자매는 근년에도 자주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식어버릴 때면 실망감을 극복하려고 애써야 했다고 말했다.

갑자기 나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나는 나의 느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에 대해 비판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또는 노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기꺼이 이야기 했다. 남편이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나는 대관장단 제2보좌이신 몬슨 장로님과 접견하게 되었는데 이때 나의 느낌을 말했다. 나는 남편이 다른 도시에서 열린 교회 모임을 마치고 자정이 훨씬 지나 차를 타고 돌아올 때면 내가 갖게 되는 두려움에 대해 말했다. 몬슨 장로님은 내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았다. 왜냐하면 저녁 늦게 갖는 모임들이 다시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기도 또한 내가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사용한 좋은 도구였다. 나는 구약 시대에 적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성벽을 세우던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을 생각했다. 그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뿐 아니라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느헤미야 4:9 참조) 하였다. 나도 남편의 생활 옆에 내 생활을 구성하고 의미 있는 활동과 취미 생활에 열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함으로써 외로움에 대항하여 “파수꾼”을 두었다.

만일 우리가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선택하여 행하고 내가 언급한 이 위험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단계를 밟는다면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생활 속에서 자신의 처지에 관계 없이 성취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활 가운데 성취감을 얻으려면 그것을 위해 일해야 한다. 상황이 바뀌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인생의 가장 큰 전쟁은 영혼의 조용한 방 내부에서 치루어 집니다.”(스티븐 알 코비, *인간 관계의 영적인 뿌리*,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0년,

67페이지) 외로운 느낌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은 쉽지 않다. 또한 재발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노여움과 자기 연민 및 비난하는 마음을 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외로운 느낌을 극복하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혼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이 한 헌두인에게 어떻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침착하고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냐고 물었다. 그는 “나는 내 명상의 장소를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30분씩 명상했다. 그리고 그는 마음 속으로 그 장소를 절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루 종일 그 장소에서 지냈던 “영적인” 정신을 잃지 않았다.

스티븐 알 코비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요셉 스미스는 거룩한 숲에서 체험한 경험이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일지라도 그는 여러 번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고, ‘인간의 설득’(교성 3:6 참조)에 넘어감으로 인하여 주님에게 꾸지람을 받았다. 주님께서서는 그를 꾸짖고 나신 후 ‘보라, 너는 요셉이라. 주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되었느니라.’(교성 3:9 참조)하고 말씀하셨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네 거룩한 숲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다.

“나는 여러분과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그날 발생하는 사건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리고 참된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에 역행하여 인생을 지배할 듯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사색하는 우리의 장소로 매일 갈 수 있기를 제안한다.”(영적인 뿌리, 64페이지)

우리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상태에 있는 것과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의 시련에 대처할 준비를 더욱 잘 하게 될 것이다. 잠시 동안일지라도 혼자 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경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깨달음으로써 내가 언급했던 조치를 적용하여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인도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철심인 제일 정원회 한스 비 링거 장로의 아내인 헬렌 링거 자매는 지역 본부 임원 대표이다. 그녀는 와드에서 상호부조회 파도기 반 교사이다.

# 피아 아주머니

마릴린 제이 휘플

나는 어렸을 때 피아 아주머니가 선물로 받은 사랑스런 새 침대 커버로 침대를 꾸미는 것을 지켜보았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피아 아주머니는 침대 커버가 너무 아름다와 앤드루 아저씨와 그분의 가정을 너무도 밝게 해 준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아주머니는 완전히 앞을 못보는 상태였다. 어떻게 그녀의 침대를 그토록 완벽하게 꾸미고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녀가 거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빗질하여 땅아서 머리 위로 깨끗하게 감아 돌리는 것을 즐겨 지켜보곤 했다. 그러나 나를 무엇보다도 놀라게 한 것은 청각을 거의 상실한 사랑하는 남편 앤드루와 의사소통하는 능력이었다. 그는 밖에서 일하다 점심을 먹기 위해 돌아와서 그녀에게 다정하게 인사한 후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부드럽게 만짐으로써 알아내곤 하였다.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뒤에야 나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 즉, 할머니의 동생인 앤드루가 아름다운 음악적인 목소리를 가진 우아한 여인 피아(소피아 왈그렌)가 그의 아내가 되기 전 그녀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어떻게 일해서 세번씩 돈을 모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소피아는 1879년 스웨덴 스코나 말모에서 헨릭 왈그렌과 율리카 바드스트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에게는 어려서 죽은 남동생 한 명과 미아라는 이름의 여동생이 있었다. 실내

장식가인 아버지는 집을 아름답게 꾸몄다. 그녀의 가족은 남녀 하인을 한 명씩 두었으며 자녀들은 음악 교습을 받고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렸다.

피아는 일곱 살때 감기에 걸렸는데 그것이 눈병으로 번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인턴 과정을 하고 있는 그 가족과 친한 의사에게 데려 갔다. 어떤 비극적인 실수로 인해 그 의사는 봉산 대신 석탄산을 그녀의 눈에 넣었다. 그녀는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됐고

다른쪽 눈은 심한 상처를 입었다.

다음 해 소피아의 어머니가 사망했으며 여덟 살 때 소피아는 아주머니와 아저씨와 함께 살기 위해 집을 떠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학문을 더 하기 위해 독일로 갔고 후에 그곳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그는 소피아가 성인이 되면 물려줄 유산을 남겨서 눈이 먼 그녀가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녀가 어린 소녀일 때, 어느 날 밤 그녀는 친구와 함께 말일성도들의 모임에 참석했다. 피아는 그곳에서 매우 큰 감명을 받았으며 선교사들의 메시지가 이상할 정도로 친숙해서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지 않았다고 후에 말했다. 그녀는 그들과 다시 만나기를 몹시 원했다. 그러나 당시 스웨덴에서는 말일성도 선교사와 개종자들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으므로, 그녀가 그곳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아저씨가 알고는 매우 화를 냈다. 아저씨는 그녀에게 다시는 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그곳에 가지 않았지만 그녀가 들은 메시지를 잊을 수 없었다. 아저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모임에 다시 갔다.

피아는 사랑스런 목소리를 가졌는데, 어느 날 밤 말일성도 사교 모임에서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치도록 부탁받았다. 유타주에서 온 선교사 앤드루 크리스토퍼슨은 그 모임에 참석해서 그녀의 노래를 들었다.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피아는 그가 곧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하기 전에 독일에 갈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당시 독일에 살고 있는 여동생 미아를 방문해 줄 수 있겠는지 물어 보았다. 그는 기꺼이 그녀의 요청을 수락했다.

피아는 선교사 토론을 계속 했으며 18세가 되자 침례를 받았다고 요청했다. 때는 11월이었으므로 선교사들은 그녀를 침례하기 위해 발트해의 얼음을 깨야 했다. 그 지역에서 계속되는 교회에 대한 반대로 인해 침례식은 밤에 행해졌다. 아저씨는 그녀의 침례 소식을 듣고서 그녀에게 종교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의 집을 떠나야 하며 유산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아의 간증은 강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진리로 알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를 거절했다. 비록 눈이 나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녀는 아저씨 집을 나와 그녀의 길을 갔다. 그녀는 성냥 공장에서 성냥 담는 직업을 얻었다.

리하이 마을로 돌아온 앤드루 크리스토퍼슨은 피아와 연락하며 그녀에게 유타로 오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이민가고 싶었지만 배를 타고 여행할 만큼 돈을 벌 수 없었다. 그래서 앤드루는 그녀에게 여비를 보낼 때까지 돈을 모았다. 그녀는 영국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다. 그녀가 보스턴에 내리자 이민국 직원은 그녀의 시력이 약한 것을 알아 채고 입국을 거절했다. 그녀의 약한 시력이 그의 국가에 짐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슬프게도 그녀는 영국으로 돌아왔다.

앤드루는 그녀에게 생긴 사건을 알았을 때 다시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다시 한번 그는 일해서 돈을 모아 그녀에게 여비를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이번에는 뉴욕시에서 입국을 시도하라고 했다. 피아는 시력 때문에 다시 입국을 거절당했다.

피아는 영국으로 되돌아 가면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선교사 일행과 사귀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허버제이 그랜트 장로가 아내와 어린 딸들과 함께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영국 리버풀에 있는 선교본부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랜트 자매는 선교부장과 접견을 하게 될 장로들과 함께 홀에서 기다리며 흐느끼고 있는 피아를 발견했다. 통역을 통해 그랜트 자매는 시온으로 가려했던 피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 어린 소녀가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랜트 자매는 피아에게 동정심을 느껴 그녀에게 선교부장 집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물었다. 피아는 그런 일에는 전혀 경험이 없었지만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들이 좀더 친해지자 그랜트 자매는 피아가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전에 가사일을 전혀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긍지를 느꼈다. 그녀는 성격이 매우 활발해서 가족 모두가 곧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능력과 인내심과 부드러운 마음에 감탄했다. 그들은 그녀가 결코 화난 음성을 내지 않고 항상 노래하며 그녀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고 말했다. 집안일을 하는 의무와 함께 그녀의 첫째 의무는 그랜트 장로의 막내 두 딸 에밀리와 프란시스를 돌보는 것이었다. 그랜트 부부는 자주 대륙 여행을 하며 유럽 선교부의 많은 지역들을 감독하면서 딸들이 피아의 보살핌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피아는 “스웨덴식” 찬물 목욕의 효과를 믿었다. 목욕탕에 온수기가 없기 때문에 더운물 목욕을 원하는 사람은 아래 층에서 물을 데워 일일이 물통에 담아 올려 욕조에 채워야 했기 때문에 스웨덴식 목욕이 훨씬 편리했다. 아침마다 피아는 수도 꼭지에 돌소금 자루를 매달고 욕조에 찬물을 틀어 물이 자루



R.T. BARRETT

위로 쏟아지게 하여 마치 바닷물 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주춤거리며 몸을 사리는 꼬마 소녀들에게 아침마다 “바다 속에 잠기게”했다. 짧은 목욕 후에 피아는 보풀이 많은 큰 수건으로 그들을 열심히 문질렀다. 후에 그들은 그 목욕을 싫어했지만 피아를 너무 사랑했으므로 그녀를 즐겁게 해 주려고 기꺼이 참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타에 있는 앤드루 크리스토퍼슨은 그가 사랑하는 사랑스런 소녀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독신으로 살면서 언젠가 피아가 유타로 성공적인 여행을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돈을 저축했다.

그랜트 가족의 선교 사업 기간이 거의 끝나자 그랜트 선교부장은 피아를 미국으로 데려갈 시도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녀를 아이들의 보모로서 그녀의 여권에 기입했으며 그가 그녀를 평생토록 도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민 당국과 문제가 없기를 바랐다. 그들이 탄 배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그랜트 가족은 피아가 그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고향에 돌아온 기쁨을 거의 잊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일은 그들이 바라던 것보다 훨씬 쉬웠다. 이민국 직원들은 아무런 질문도 검사도 하지 않았다. 피아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랜트 가족은 1906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솔트레이크에 도착했다. 피아는 크게 환영받았다. 그랜트 장로는 그녀를 법적으로 양녀로 삼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아마도 그녀의 나이 때문에 이것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이상 고용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랑받고 대우받았다.

앤드루 크리스토퍼슨은 피아가 솔트레이크에서 그랜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에게 구혼하기 위해 방문할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몇달 후 그는 그랜트 장로에게 피아와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청했다. 소피아와 앤드루는 1907년 6월 14일 그랜트 장로가 의식을 집행하는 가운데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앤드루는 신부를 리하이에 있는 조그만 오두막 집으로 데리고

갔다. 상황은 그녀가 익숙해 있던 것과 너무 달랐다. 그녀가 적응해야 할 일들은 참으로 힘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아는 복음을 위해 편한 생활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그만 농가 생활을 위해 상대적으로 화려한 그랜트 가정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했으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농부의 아내로서 새로운 기술을 많이 배웠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일했다.

세월이 흘러 그들 가족은 두 아들과 두 딸(그랜트, 리드, 미아, 엘렌)을 갖는 축복을 받았다. 큰 아들의 이름은 허버 제이 그랜트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녀의 눈에 빛이 들어오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피아는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가정에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따뜻한 환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가정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사랑을 느꼈다. 그들은 환영받고 음식을 대접받았으며, 어려울 때는 격려받고 기운을 얻었다.

피아 아주머니의 한가지 슬픔은 스웨덴에 있는 가족과 연락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가 알기로는 그녀가 가족 중에서 복음을 받아 들인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친척과 조상에 대한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그녀는 조상의 계보를 구해서 조상을 위한 성전 사업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의 남편 앤드루는 1954년 6월 17일에 사망했다. 피아 아주머니는 죽기 몇달 전 뇌일혈로 고생하게 될 때까지 그 집에서 혼자 살았다. 그녀는 헌신적으로 돌보는 딸 미아의 집으로 옮겨져서 1961년 5월 8일 갑작스런 심장 마비로 사망할 때까지 미아의 보살핌을 받았다.

피아 아주머니는 수많은 친구들과 친척들이 소중히 간직할 추억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그녀와 우정을 나누는 특권을 다시 누릴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축복이 될 유산을 남겼다.\*

마릴린 제이 휘플은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스테이크 윈터스 지부에 살고 있다.



# 배움의 네 단계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는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배움의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배움의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네 단계를 제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여러 해 외과 교수를 하면서 배움에 대한 개인적인 차이를 지켜보아 왔습니다. 수술 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연습생들은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내용이 없는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배우려는 욕망을 가진 연습생은 계속 질문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나는 배우려는 강한 욕망을 가진 학생들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둘째, 탐구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렛의 동생이 바다를 건너기 위해 준비하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배 안에 빛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저희로 이 대해를 암흑 중에 건너게 하시겠나이까?”하고 여쭙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흥미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배 안에 빛을 있게 하도록 내게 청함이 어쩡이나? 보라, 산산이 조각이 날 것인데 너희가 창을 달지 못하겠고 불빛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인즉 불을 달지 못하리니, 보라 너희는 마치 바다 한 가운데 있는 고래와 같아...”(이더서 2:23~24 참조) 주님께서는 야렛의 동생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렛의 동생이 스스로 연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야렛의 동생은 16개의 돌을 취해서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빛을 발하도록 주님께 그 돌들을 만져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말일의 계시에서도 주님께서 그의 종에게 말씀하실 때 같은 개념을 강조하셨습니다.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 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교성 9:7~8 참조)

교리와 성약에 있는 많은 계시들은 예언자들이 깊이 연구하고 주님께 신중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간구한 후에야 주어졌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그러한 방법으로 주어졌고, 1978년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에게 주어진 신권에 관한 계시도 같은 방법으로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탐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강한 욕망을 가지고 외국어를 배우다 할지라도 일상 생활에 적용한 후에야 그 언어를 숙달하게 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단계는 기도로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로서 나는 내가 수행해야 할 어떠한 수술에 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사용하게 될지도 모를 어떠한 새로운 기술적인 절차도 포함시킵니다. 때때로 기도하는 동안 떠오른 수술 진행 절차에 대한 생각이 더 좋은 방법을 알게 해 주시는 거룩한 지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배움도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전 공부 및 양서, 예술, 건전한 음악 등을 가까이하는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육신을 보살피듯이 영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모범이 되는 훌륭한 사람들을 선택하십시오.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그들의 신앙이 따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을 만큼 강한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강하지 않다면 그런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성경,

교회 내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현자의 사상에서 얻은 것이든 루이스 파스테르와 같은 과학자들의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든 혹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밝히신 말씀이든 모든 진리를 수용합니다.

물론,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는 여러분이 모든 교리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죄, 외설 문학 또는 영을 고양시키는 대신에 문자에 매달리는 율법과 같은 독소를 피하십시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고린도후서 3:6 참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많은 도전이 놓여질 것입니다. 예를들어 여러분은 이 교회가 “반지성적”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주장이 그르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지식을 찾고 공부하도록 격려받아 왔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과학적인 실험에서 나왔는지 주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었는지 관계없이 모든 지식을 수용합니다. 우리는 모든 진리를 복음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의 진리가 다른 진리와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각 시대를 살펴보면 가장 훌륭한 지식인들은 대개 가장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유 및 영생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만 한다면 망명함으로 해서 목숨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아주 평온하게 아테네 법정 사형 선고를 받아 들였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화학자 루이 파스퇴르(1822~1895)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우리의 언어에 가장 아름다운 말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에 거하심’을 의미하는 열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르네 제이 두보, 루이 파스퇴르: 과학의 개척자(보스톤: 리틀 브라운 앤 컴패니, 1950년), 392페이지]

십이사도 평의회를 살펴 봅시다. 그 가운데 일곱 분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셨고 나머지 분들은 명예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받은 교육이 영적인 부름에 자격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학문 탐구는 지식을 쌓으라고 하신 주님의 권고를 얼마나 잘 따랐는가를 보여 줍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완전해 가깝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배우지 못하였으며 세상에서 경멸받는 미약한 자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의 영의 권능으로 나라를 채찍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난자들에 의해 심한 박해를 받을 때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번도 내가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친 계시에는 오류라고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용지물처럼 내버려져야 한단 말입니까?”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52페이지 참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원을 위한 교육으로 여러분 자신의 품성을 높일 때 경전을 상고하십시오. 경전 속의 인물들을 여러분과 견주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십시오. 표준 경전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측정하는 영원한 표준으로 사용하십시오. \*

1984년 십이사도 평의회 일원으로 부름받기 전 러셀 엠 넬슨 장로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심장 외과 의사이며 의학 연구자였다. 그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 스테이크 부장 및 지역 대표로 봉사했다. 이 기사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행한 노년의 모임에서 발췌한 것이다.



수요 정오 10시

Weller

# 행복과 성공에 필요한 요소

조 제이 크리스텐슨 릭스 대학 총장

지난 수년간 여러 가지 임무 지명을 받아 수행한 결과로 나의 아내와 나는 수많은 젊은 남녀와 사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우리는 행복해지거나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존재의 목적이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 의로움, 성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9페이지) 사실상 경전은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해 준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을 낳게 하려 함이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이서 2:25)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에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가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러분 가운데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문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이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첫째,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응답의 일부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게으르면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을 별로 만나 보지 못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게으르기를 그치라... 필요 이상의 잠자기를 그치라. 네 침상에 일찍 들어가 피로를 풀고 일찍 일어나 너희 육체와 정신을 활기있게 하라.”(교성 88:124) 다른 말로 하면 게으르고 잠자리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성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둘째, 행복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인내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행복 및 성공 사이에 놓여 있는 듯한 생활의 장애에 부딪치게 된다. 여러분은 자신의 키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거나, 너무 무지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여러분의 외모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다. 체중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돈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생활에서 사교적인 기회가 충분하지 않거나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장애들 중 몇 가지는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으며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든, 당면하는 문제에 대처하고 생활 가운데서 장애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당면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브래드 홀은 이러한 경우의 좋은 예이다. 그는 훌륭한 선교사로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이었다. 하루는 밤에 그와 동반자가 그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무장한 도둑이 들어 있었다. 강도는 총을 쏘서 홀 장로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 결과로 그는 하반신 마비가 되어 휠체어를 타게 되었다. 그는 귀국하여 대학에 들어갔다. 그는 대학 생활과 겨울의 눈 속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했다.

봄에 대학에서 시상할 때 홀 장로는 수석 장학생들 가운데 끼게 되었다. 그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 수 있음을 증명했다.

**3**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면 여러분은 순결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인간의 신체적 성장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매력에 매우 강해지는 시기에 다다르게 된다. 여러분은 그러한 강한 감정과 매력을 억제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을 통해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세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듯하지만 지극히 부도덕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참된 행복과 기쁨을 성취할 수가 없다.

어느 신문의 기고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나는 결혼하기까지 순결을 지킨 것을 유감이라고 말하는 여성의 편지를 한 통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결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며 크게 후회한다고 하는 편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행복과 성공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순결한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결혼 생활 이외의 성관계가 해롭지 않다고 한 순간도 믿어서는 안된다. 불법적인 성관계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해롭다. 그것은 여러분을 쉽게 파멸시킬 수 있다.

**4** 행복과 성공으로 이끄는 또 다른 요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일찍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값을 헤아릴 수 없다.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만난 오스트리아 출신의 한 장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내가 보기에 그는 다른 장로들보다 약간 나이가 들어 보였다. 그는 열여섯 살에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입교했다. 은행가인 그의 부친은 종교에 관심이 없었지만 아내와 아들이 교회에 다니는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이 장로의 문제는 그가 세미나리 자료를 공부하려 할 때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가 경전과 종이를 책상에 꺼내 놓으려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들어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 것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학교 공부나 하도록 해.” 때로 그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아들의 경전과 종이를 집어 던지곤 하였다.

열여덟 살이 되었을 때 이 젊은이는 선교 사업에 대해 좀더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날 일본으로 선교 사업을 가도록 부름받는 꿈을 꾸기까지 했다. 그것은 부드럽고도 좋은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안된다. 너는 네 생애의 2년을 선교사로 낭비해서는 안돼. 너는 대학에 가야 돼.” 아버지는 아들이 은행가가 되어 그의 뒤를 따라 오기를 원했다.

그의 부친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일이 더 좋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대학에 가기로 했다. 그가 미국에 와서 브리감 영 대학교에 등록을 한 일이 그의 부친을 행복하게 해주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는 경영학을 공부하여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얼마 후에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곧 독일 뮌헨에 있는 국제 금융 기관의 간부로 입사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스물 다섯으로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연령이었다. 그는 그때까지도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큰 소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스테이크 부장을 찾아가 그의 뜻을 알렸다. 그는 그가 꾸었던 꿈 이야기까지

했다. 스테이크 부장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이 일본으로 부름을 받을 것 같지는 않군요. 여기에서는 아무도 일본으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아마 유럽에 있는 나라로 부름을 받을지 몰라도 일본은 아닙니다.”

그의 부친은 아들이 은행에서

그의 위치를 2년 간 떠나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몹시 화를 냈다. 그는 비엔나에서 그에게 찾아와 그의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지 않도록 온갖 방법으로 다 설득시키려 했다. 은행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그에게 와 2년 간 직장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설득시키려 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애야, 이것이 너에게 직업적으로 보면 월급으로 얼마만한 손해며 또 기회를 상실하는 것인 줄 아느냐? 앉아서 2년 간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될 지 계산이나 해 보아라”

젊은이는 그렇게 하였다. 그는 그의 선교 사업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요구되는 지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나왔다. “그보다 여러 배의 돈이 든다 하더라도 나는 선교사로 일하고

**행** 복해지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응답의 일부임을 알아야 합니다.





싶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훌륭하게 선교 사업을 마쳤다. 내 생각에는 독어, 영어, 일본어를 말하는 잘 훈련된 젊은 경영인을 고용하려 하는 국제 금융 기관이 많다고 본다. 이 세 언어는 경제적인 자유 세계에서 주요 언어이다. 그가 비록 이 또 하나의 경험의 결과로 인해 어떤 추가 수입을 얻지는 못했지만 선교 사업은 그에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인생에서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가치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5** 마지막으로, 행복과 성공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혼자일 때라도 여러분의 이상과 표준에 일치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여러분의 결심에 대한 참된 시험은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측정될 수 있다.

내가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에서 최초의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나의 동반자와 나는 선교부장으로부터 매우 흥미있는 마지막 임무를 받았다. 그는 우리에게 수개월전 선교사들이 종교적인 박해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철수했던 지역인 남부 멕시코의 어느 마을로 가라고 했다. 그들은 폭도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다. 소수의 개종자들이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교회 조직은 아직 그곳에 없었다. 그 결과 이들 새로운 회원들은 홀로 남아 있게 되었으며 여러 달 동안 선교부장은 그곳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거의 듣지 못했다.

우리에게는 명단이 주어졌으며 선교부장으로부터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을 찾아 내어 상황을 알아보고 가능하면 은밀하게 성찬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보라고 했다. 그 여러 달 동안 그들은 우리가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도 때로는 감사함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우리는 아침 일찍 그곳에 도착하여 즉시 명단에 있는 첫번째 이름의 주소를 찾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어 작은 오두막집들이 밀집되어 둘러 있는 높은 흙벽돌 벽에 나있는 문을 지났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저쪽 뒷편에 조그만 초가집이 있었다. 우리가 찾는 그 자매가 우리를 보고는 우리의 복장을 보고 선교사임을 쉽게 알아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우리에게 뛰어와 얼싸 안고 인사를 했다. 우리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곳에 간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가 끝난 뒤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항아리를 하나 들고 나와서는 그 안에서 수개월 동안 저축해온 돈을 꺼냈다. 아무런 교회 조직도 없었지만 그녀는 언젠가는 적절한 장소에 그녀의 심일조를 가져갈 수 있으리라는 신앙을 갖고 심일조를 저축해 온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 돈을 우리에게 주었다. 내가 처음 느낀 것은 그돈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계명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심일조가 신성한 계명이라는 간증을 얻었으며 그녀가 홀로 있을 때에도 그 원리에 따라 살기를 원했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표준에 따라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다. 특별히 주위에 우리를 확인해 줄 사람이 없을 때 더욱 그렇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있던 관계 없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 대학에 가 있던 온갖 유혹이 있는 사교장에 가 있던 혹은 다른 장소에 가 있던 우리는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에 충실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이상과 일치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잘못된 개념으로 가득찬 배도의 세계에 살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밝게 빛나는 불빛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 의로움, 성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가르침, 249페이지)\*



물 문 메 시 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였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흠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휴 비 브라운 장로의 말씀 중에서 인용함.

마르시아 윈터톤의 그림책

# 준비하라

마르시아 윈터톤



Lori Anderson

# 교육에 관한 메시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왜 이 지상에 왔고, 이 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것을 모른다면 누구도 참다운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모든 사람은 읽기와 쓰기 및 기초적인 수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정기적으로 경전 및 기타 양서를 읽어야 한다.”복지 사업 자원 지침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위해 손과 마음을 단련시킬 시기입니다.”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단 제1보좌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성 88 : 118)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그 진리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이 지상의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연구하며 공부하며 모든 양서를 통독하라. 여러 나라의 언어와 방언을 통달하며 여러 국민과 친숙하라.”(교성 90 : 15)

“영적인 배움이 있고 물리적인 배움이 있는 데, 둘중 하나가 없이는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라. 만일 어느 사람이 근면하고 순종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보다 한층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었으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그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교성 130 : 18~19)\*

내가 풀벌반 회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윌레 감독의 청소년 위원회 모임에서 반을 대표하여 참석해야 하는 책임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며, 또한 그 모임에서 가장 어리다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모임이 있기 전날 밤 나는 방에서 걱정을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나의 교사님께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경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경전을 집어 들었지만 어디를 살펴봐야 할지 몰라서 색인표에서 “두려움”에 관한 항목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나의 생명을 구해줄 듯한 구절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교리와 성약 38편 30절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 하지 않으리라.”

경전의 어느 구절도 이 글처럼 나에게 강한 느낌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준비되었는가?” 예,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무언에 대해 토론할지 알고 있었으며, 나의 고문이 그곳에서 나를 도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원리는 그 이후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시험을 위해서 잘 준비한다면 시험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맡은 부분을 연습한다면 음악 발표에 관해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찬식 말씀을 연습하고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전 구절로 인해 내 생활에서 많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이 생을 사는 동안 구세주의 재림을 준비한다면 그 또한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가 준비되었음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마음 속의 화평과 기쁨으로 구세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Brooke Anderson

성도의 빛 / 89 9월호

# 가정 건강 관리

## 사고 예방

많은 상해가 피할 수 있는 사고에 의해 야기된다. 사고는 가끔 부엌이나 조리하는 장소에서 일어난다. 다른 사고는 어린이들이 유해한 물질을 먹거나 마시고 또는 가지고 놀 때 발생한다. 차량이 많은 길거리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어린이들에게 만지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갖고 노는 것, 그들이 가는 곳에 대해 주의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조리하는 장소

모든 가정에는 조리하는 장소가 있다. 그곳에는 음식을 마련하는 난로나 불이 있다. 음식을 준비할 때는 조리 기구나 음식이 뜨겁기 때문에 어린이가 요리하는 곳에 있을 때에는 주의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뜨거운 주전자나 수저 같은 식기를 만져 데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조리가 끝나고 나면 뜨거운 냄비팬 또는 뜨거운 기름 같은 것들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가능하면 어린이는 조리하는 장소 밖에 두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요인이 되거나 뜨거운 것을 흘리지 않게 해야 한다.

## 해로운 물질

우리는 마실 경우 해로운 많은 것들을 집에 두고 있다. 이것들은 석유, 휘발유, 엔진 오일, 약, 세제 등이다. 이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이 먹거나 마실 수가 있다. 이것은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 해로운 물질들은 쉽게 타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갖고 놀 경우

불을 낼 수도 있다. 부모는 몇 가지 간단한 일을 함으로써 위험한 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1. 유해한 것들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그것들을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거나 어린이가 갈 수 없는 곳에 둔다.
2. 유해한 것들을 식기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들이 그것을 먹거나 마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해로운 것이 들어 있는 용기에는 표시를 해 둔다. 어린이들에게 그 표시는 독을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많은 장소에서 사람들은 독이나 해로운 것을 표시하기 위해 해골과 뼈의 그림으로 엑스를 표시한다.)

## 거리에서

매년 많은 어린이들이 차, 트럭, 버스 및 오토바이에 의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다.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규칙 몇 가지를 가르쳐 주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1. 항상 차, 트럭, 버스 및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살핀다. 가까이 오면 안전하게 물러선다.
2. 차량이 오는 쪽을 향해서 보도 위를 걷는다. 결코 길 가운데로 건너거나 차가 가는 방향의 보도 가로 걸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길을 건너기 전에는 반드시 양쪽을 살핀다. 차가 가까이 오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4. 어두워진 뒤에는 밝은 색의 옷을 입어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게 한다.
5. 길을 건널 때는 어린 아이의 손을 잡는다. 차량이 올 경우 어린 아이들은 빨리 움직이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1. 사고가 날 만한 것들의 목록을 가정에서 작성한다. 이러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2. 자녀에게 부주의해서 사고를 당하는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 항상 주의하고 안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3.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물질이 들어 있음을 말해 주는 표시를 보여 주고 결코 먹고 마시거나 장난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 상처의 치료

우리의 피부는 세균과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피부가 상처를 입게 되면 균이 몸안으로 침투한다. 상처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어떤 것은 얇힌 자국처럼 작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심하게 베었을 경우처럼 매우 깊을 수도 있다. 어떤 상처에서는 많은 피가 나고 어떤 상처에서는 피가 조금 밖에 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상처는 집에서 치료할 수 있다.

대개의 상처를 치료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다.

- 1) 지혈시키고, 2) 상처를 소독하고, 3) 상처를 감싼다.

## 지혈

지혈을 시키려면 상처 위에 깨끗한 천을 대고 피가 멈출 때까지 누른다. 시간은 10분이나 15분쯤 걸릴 수도 있다. 천이 피에 배더라도 옮기지 않도록 한다. 천을 더 댈다. 10분이나 15분이 지나도 지혈이 되지 않으면 가능한 한 빨리 의사를 찾아간다.

## 상처 소독

상처는 소독되어야 한다. 상처를 소독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림 1  
깨끗한 천으로 지혈시킴



그림 2  
깨끗한 물로 상처를 소독함



그림 3  
깨끗한 밴드로 상처를 싸맨

상처에 흙이나 균이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킨다. 먼저 비누와 깨끗한 물로 손을 씻는다. 그런 다음 비누와 깨끗한 물로 상처를 닦아낸다. (물은 끓이거나 염소 표백제 5퍼센트 소다 차아 염소산제)를 탄다. 보통 염소 표백제 여덟 방울이면 한 갤론의 물을 정제할 수 있다.

부드럽게, 그러나 상처가 깨끗하게 소독되었는지 확인한다. 상처를 소독한 뒤 깨끗한 물을 여러 번 부어 상처를 닦는다. 찢린 상처-못과 같은 뾰족한 것에 찢렸을 때-는 상처가 깊지만 피가 많이 나지 않는다. 그 상처는 염증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잘 소독해야 한다. 상처가 매우 깊을 때는 병원에 가서

소독해야 한다.

상처에는 항생 연고나 크림을 바른다. 이 약은 어느 약국에나 있다. 상처에 절대로 발라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진흙, 흙 또는 배설물 등은 절대로 상처에 바르지 않도록 한다. 찢린 상처가 깊을 때는 병원에 가서 면역 주사를 맞도록 한다. 이것은 심한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처를 싸맨다.

상처가 깊고 피부가 벗겨졌을 경우 벗겨진 피부를 접합시킬 필요가 있다. 피부를 접합시킬 때는 나비 밴드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비 밴드는 테이프를 잘라 그 테이프의

양쪽에 브이(V)자 홈이 파이도록 자른다. 이 나비 밴드는 상처의 떨어진 피부를 잡아당겨 준다. 상처가 심할 때는 병원에 가서 꿰매야 한다.

피부가 굵히기만 했을 경우에는 싸매기만 하면 된다. 찢린 상처는 봉합시키지 않도록 한다. 상처는 깨끗하게 소독하여 그대로 마르도록 놔두어야 한다.

상처가 깊은 외상은 처음 며칠 동안 싸매어 두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빨리 낫는다. 상처를 싸매 때는 깨끗한 천이나 가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처에 흙이나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며칠이 지난 후 상처를 싸맨 것을 떼어 내어 상처가 마르고 치료될 수 있게 한다. 상처 부위가 깨끗한지 확인한다.

지혈시키고 비누와 깨끗한 물로 상처를 닦아내고 잘 싸맨다면 상처는 빨리 낫고 심한 염증을 피할 수 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1. 가족 중 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가장한다. 가족이 지혈 및 상처를 소독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한다.
2. 구급 상자를 준비한다. 깨끗한 천, 비누, 항생 연고나 크림, 의료용 테이프를 마련해 둔다.
3. 나비 밴드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4. 자녀들에게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이 어디 있는지 알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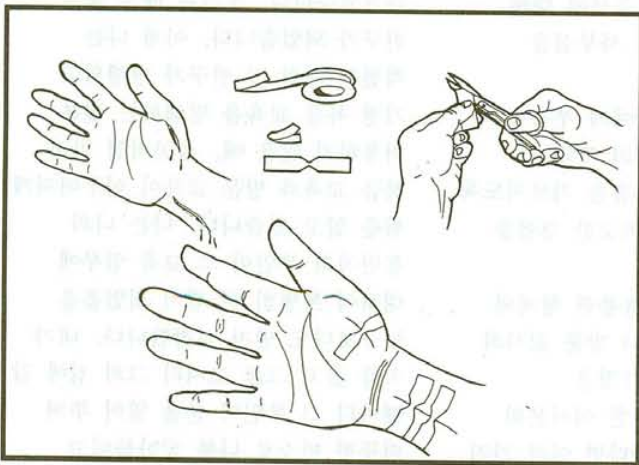


그림 4  
나비 밴드 만드는 법

